

# 바

## 성폭력

**Vol.1**  
2010 하반기호

### 기획특집

정치권, 성폭력사를 끌어내라

### 쟁점과 입장

요즘 군대 달라졌다?

성폭력 가해자,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 대안읽기

성폭력 경험, 현명하게 공감하는 법

### 프리즘

학교 들여다보기

### 성문화 읽기

퀴어와 함께 살아가기!!

### 사례연구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살핌 의무'

연예인-기획사-스폰서의 위태로운 3중주



## [반성폭력] 1호를 펴내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회원소식지 <나눔터>가 개편하여 <반성폭력>과 <나눔터>로 연 2회씩 발간됩니다.

지금까지 <나눔터>는 회원소식지이자 반성폭력 활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매체였습니다. 개소 20주년을 맞는 지금, 이번 <나눔터>의 개편은 20년에 걸친 현장 경험을 우리 사회에 더욱 힘있게 알려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성폭력>을 통해서는 반성폭력 운동의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고, 상담소가 쌓아온 현장의 경험을 보다 많은 대중과 나누고자 합니다. 단체의 회원소식지를 넘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지금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역사가 그려하듯 한국 사회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로 축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 반성폭력 운동의 대안과 전망을 모색하며 보다 치열하고 충실하게 한 호 한 호를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반성폭력 운동을 담아낼 <반성폭력>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얼굴로 찾아볼 <나눔터>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그리겠습니다. 일상의 사소함을 통해 삶의 지평을 열어내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따뜻한 회원소식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 바

성폭력

Vol.1  
2010 하반기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1

### 기획특집 [정치권, 성폭력사를 끌어내라]

- 7 정치인 성희롱, 무엇이 문제인가?
- 11 끊이지 않는 정치인의 성희롱/성추행, 해결책은?
- 17 참으시겠습니까, 꺾어내시겠습니까?

## 2

### 쟁점과 입장

- 22 요즘 군대 달라졌다? : 해병대 성폭력 사건으로 본 군대 내 성폭력
- 27 성폭력 가해자,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 대안읽기

- 31 성폭력 경험, 현명하게 공감하는 법

### 프리즘 [학교 들여다보기]

- 37 학교를 까면, 무엇이 열리나
- 43 성별화된 심대 성문화와 또래 성폭력
- 48 '대구초등학교 집단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학교 성폭력 문제

### 통계 이야기

- 54 재범(再犯)율을 재범(再犯 : 다시 엿보다)하기

### 성문화 읽기

- 58 퀴어와 함께 살아가기!

## 3

### 생존자 말하기

- 64 성폭력을 말할 수 있을까?

### 성폭력과 사람들

- 68 지리멸렬해, 그래도 가족.

### 사례연구

- 72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살핌 의무'
- 76 연예인-기획사-스폰서의 위태로운 3중주

### 상담통계

- 81 2010년 상반기 상담통계

## 4

### 여성주의로 문화읽기

- 87 화살이 흥심을 뚫기까지 : 그녀들의 단단한 몸에 붙이는 글

### 날말퍼즐

- 92 날말퍼즐
- 94 아낌없이주는나무



여자들이 돌려 말하기보다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

〈몬터너 캐츠〉



# 1

기획특집 [정치권, 성폭력史를 끌어내라]

정치인 성희롱, 무엇이 문제인가?

끝이지 않는 정치인의 성희롱/성추행, 해결책은?

참으시겠습니까, 꺾매시겠습니까?

# { 정치권, 성폭력史를 끌어내라

2010년 여름, 한 정치인의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비슷한 시기,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지역 군수와 의회장의 성희롱을 인정했다. 정치권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봄에 실시된 총선에서는 성희롱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 도지사가 다시 당선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의원직 박탈요구에 버티다가 탈당 2년 뒤 복당해 지금껏 국회의원직에 자리하고 있는 자도 있다. 첫 번째 언급한 정치인 또한 끊임없는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탈당 후 버티다가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여·야당 할 것 없이 마찬가지다. 사건이 발생하면 감싸주거나 탈당처리 후 나 몰라라 하기 일쑤다. 하긴, 대통령조차 '마사지길' 따위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싶기도 하다.

한숨이 난다. 왜 정치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가? 아동성폭력 사건에는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어째서 본인들의 행동은 성찰하지 않는가? 과연 '올바른 성인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기는 한가? 그리고, 사건 시에는 그렇게나 '도덕성'을 지탄받던 그들이 어째서, 슬그머니 다시 돌아오는가?

이러한 의문과 일말의 체념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번 호 기획특집에서는 한국사회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제도 마련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유력인사들의 성폭력 행태를 꼬집는 '꼬매고 싶은 입'의 활동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이를 고발하는 액션이 필요함을 알린다. 시민의, 유권자의 심판이야말로 그들의 '성폭력史'를 호되게 끌어낼 수 있는 힘일 것이다.



# 정치인 성희롱, 무엇이 문제인가?

조현옥 |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우리사회에서 성희롱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비하의 한 모습이며 자기 가족을 제외한 모든 여성들을 성적 농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그야말로 비열한 행동이다. 특히 성희롱을 일삼는 사람들은 성희롱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죄의식을 가지기 보다는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또는 ‘동생 같아서’ 라는 이유를 붙여 무마하려거나 사소한 일로 만든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제재조항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성희롱이 범죄행위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성희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심심치 않게 성희롱 발언을 내놓으면서 사회문제, 또는 정치적 문제로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치인 성희롱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정치인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정치인 성희롱과 남성중심적 정치문화

정치는 개혁의 과정을 거쳐왔음에도 여전히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영역이다. 이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여성의 참여가 더디고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5%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로도 유추할 수 있다. 정치권 내에서 남성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해를 중심으로 남성들만의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여성 정치인들을 주변화 시키며, 여성들을 동등한 동료로 대하기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런 남성중심적 분위기 속에서 성희롱은 범죄로 인식되기 보다는 남성다움이나 술자리의 여흥으로 여겨지기 쉽다. 이는 그동안 불거졌던 대통령의 마사지 걸 발언,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사건, 고창균수의 누드사진 강요사건, 최근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물론 성희롱 사건이 공식적으로 문제화되면 해당 정치인은 정당에서 징계를 받거나 심지어는 탈당조치를 당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치인들의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성희롱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희롱은 너도나도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걸린 사람만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남성 정치인들의 인식이다. 게다가 성희롱 사건으로 정치인들이 받는 처벌인 징계나 탈당이 정치생명을 이어나가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도 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이다.

정치인들의 성희롱 문제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성희롱이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희롱은 남녀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가해자의 의지가 담겨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희롱이 평등한 관계

에서 보다는 남성과 여성, 상사와 부하, 갑과 을, 교수와 학생과 같이 좀 더 힘을 가진 사람과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성희롱에는 피해자는 원치 않아도 가해자가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해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규칙이 숨어 있다.

또 우리가 정치인 성희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윤리나 성인식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국민들 개개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철저한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하며, 범죄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해야 한다. 물론 여성과 같은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정치인의 성희롱 발원 등 윤리적인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단죄해야 하는 이유이다.

### 정치인 성희롱을 근절하려면

정치인의 성희롱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징계도 여론의 눈치를 보며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 정당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반대 여론 무마에 나서지만, 대체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정치인을 탈당시키더라도 이내 복당이 추진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의 성희롱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

우선 무엇보다도 국회 또는 정당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남성 정치인들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국회에서 성희롱 방지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당차원에서는 당헌당규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



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희롱 정치인들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공천권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방 교육과 제도개선과 함께 정치인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심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민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성추행으로 탈당조치 되었던 제주 우근민 지사의 복당을 추진했던 경우나, 2006년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었지만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재당선된 최연희 의원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희롱 전력은 정당에서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정당이 정치인들의 성희롱 전력을 공천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지 않고 이들을 선거에 출마하게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해당 정치인들을 선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이자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으로 문제가 된 정치인은 정치활동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낙선시키는 유권자들의 세력화와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힘이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정치문화를 바꿔낼 수 있으며, 정치인 성희롱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끊이지 않는 정치인의 성희롱/성추행, 해결책은?

이윤상 | 본 상담소 소장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에게는 청렴성이나 도덕성, 철저한 인권의식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성희롱/성추행 가해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좁게는 정치문화, 넓게는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 문제다. 인식과 문화를 바꾸어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인권의식 수준이 일천할수록 그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 해결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정당의 당헌·당규 및 관련 국회 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정당의 당헌 및 당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정치인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들조차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본인이나 당의 대변인의 사과로 무마하거나, 피해자 측에서 진정 혹은 고소한 경우에는 거의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당에서는 수수방관하며 손을 놓는 것이 보통이다. 2007년도에 있었던 강재섭 의원의 〈강안남자〉 발언 건의 경우,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잘못한 것은 맞

지만 윤리위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정당의 기본 정신과 절차를 담고 있는 당헌, 당규에는 정당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성차별 및 여성폭력 사안 대응방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여전히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당의 공천 기준에 여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자를 제한한다는 등의 기준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출직 공직자의 기본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성희롱 사건이 공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가해자나 관계자들이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일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성희롱 전력자의 경우 꼭 범법자가 아니더라도 공천권에 제한을 둔다면 본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의 윤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여성의 30% 이상 참여가 명시화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성희롱을 중대한 인권문제로 보지 않는 남성중심적인 당 문화 내에서 제대로 된 판단과 징계를 위해서는 성인지적 감수성을 지닌 여성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별 정당의 책임있는 태도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의 인권원칙을 명확히 하고 준수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1991년에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한다’는 취지 하에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윤리특위)를 설치하였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과 같은 특권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스스로 자신의 언행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의식이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국회 차원의 자정능력



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17대 국회 윤리특위의 의안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접수된 82건 중 절반에 이르는 40건이 심사기한 만료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처리된 42건 중에도 가결된 것은 17건에 불과했다. 또한 국회 윤리특위의 의원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가결 될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1991년 국회 윤리특위가 개설된 이후 단 한 건의 의원 징계안도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없다.<sup>1)</sup> 과연 윤리특위를 설립한 취지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거나 한 것인지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윤리심사안 역시 현행법이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위반여부를 본인에게 통고하는 수준에서 징계를 하도록 하여 사실상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의원들의 반인권적 행위를 규제할 구체적인 장치가 없는 것도 정치인의 인권불감증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번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관한 징계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는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강용석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인권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다. 성희롱 문제가 품위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의 본질을 왜곡·호도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회는 품위 유지나 청렴 의무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대폭 보완하

---

1) 2010. 8. 6.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중앙일보 허진 기자 인터뷰 중

여, 반인권·반여성적·반유권자적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징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징계의 종류 또한 세분화·실질화하여야 한다. 현재 가장 중한 징계는 국회의원 자격 박탈(제명)인데, 사실상 제명 이후에도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다시 출마하여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별다른 제재효과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질적인 징계 효과를 위해서는 관련법에 '선출직 자격정지' 징계를 명시하여 조치를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성희롱예방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성희롱예방교육실시가 의무화<sup>2</sup> 된 이후, 민간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최소한 연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국가기관에 속한 직원이 아니어서 법률로 정하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모든 것이 의무로 강제되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지만, 국회 등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은 강제가 아니면 안

2)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8>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되는 낮은 수준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국회의원과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국회의원은 전무하고, 오로지 원외 위원장 세 사람만 남았다고 한다.<sup>3</sup> 여성가족부는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7월 21일 국회사무처에 국회의 원 및 지방의회에 대해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는 강력한 권고 공문을 보냈지만, 막상 8월 23일에 실시된 국회 성희롱예방교육에 출석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의원실 소속 보좌관들의 무관심도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보도다<sup>4</sup>. 국회의원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여성가족부는 이들을 ‘의무’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하니<sup>5</sup> 이후 여성가족부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2002년과 2004년 여성부는 우근민 지사와 이정재 의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도지사와 국회의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도록 시정 권고 한 바 있다. 이렇게 성희롱 결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부(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업무 이관)의 권고가 시정명령권이 없다는 한계는 차치하고라도, 민간기관도 아닌 공공업무를 책임지는 조직에서 공식적인 권고에 따르는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희롱/성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제도를 정비하여 광역·기초단체

3) 2010.7.30 “국회의원 성희롱예방교육 받는다”, 여성신문(1093호), 김유리 기자

4) 2010.8.25 “국회 성희롱교육, 참석의원 ‘0’”, 문화일보, 김만용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82501071023080002>)

5) 2010.7.30 “국회의원 성희롱예방교육 받는다”, 여성신문(1093호), 김유리 기자

장 및 의원들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 내에도 필수과정으로 두어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기타 관련법 정비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산등록 및 변경사항 보고 의무 중심으로 내용이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윤리’에는 청렴성 및 공정성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인권감수성이 겸비될 수 있도록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등 여성인권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인권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징계 내용에 여성인권침해 내용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 조항도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법적 의무 여부가 아니라, 성희롱/성추행을 인권침해 사안으로 명확하게 인식하느냐는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야 법을 지키고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생길 수 있을테니 말이다. 제 아무리 많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그저 법망을 피해갈 생각만 하고 있다면, 수많은 좋은 법과 제도는 그저 보기 좋은 쓰레기 역할밖에 못하게 될 것이다. 강용석 의원 징계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위해 어렵사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칙을 개정하였더니, 이제는 한나라당에서 자문위 인선에 협조하지 않아서 진행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이들이 법과 제도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좋은 예다.



# 참으시겠습니까, 꺾매시겠습니까?

몽 |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언니네트워크<sup>1</sup>는 2006년부터 매해 연말이면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들을 꼽아 <꼬매고 싶은 입><sup>2</sup>(이하 '꼬매입')이라는 이름으로 '재봉틀상', '대바늘상', '본드상' (순서대로 1, 2, 3등상)을 시상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발언과 행동거지에 대해서 쌍심지를 켜고 일 년 내내 감시하는 빅브라더는 아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 혹은 모범을 보여야 할 특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사, 즉 소위 '지도자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이 그 대상이 된다. 법조계, 경찰계, 사회·문화·예술계 등 전 영역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싶은 바람과는 무관하게, 정치권의 성추행/성희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만년 재봉틀상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홈페이지 : <http://www.unninetwork.net/>

2) 표준어인 '꺾매다'라는 말을 대신해 좀 더 부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꼬매고'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좋은데 맞춤법이나 제대로 알고 쓰자'며 일장연설로 시작하다 어김없이 <꼬매고 싶은 입> 선정에 쌍두문자를 날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변명 아닌 변명.

## ‘쿨’ 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근데 그 상을 주는 분들은 직업이 그건가요? 그런 일로도 요즘 같은 세상에 밥벌이가 되는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뭐 껌매고 싶은 입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 인지는…… 그렇게 이슈화할 일인지…… 뭐랄까 ‘뽕꾸똥꾸’란 말을 규제하겠다는 정부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을까? …… 아무튼 바쁘게 사는 직장인으로서 그 일을 하시면서 월급을 받는다면 부러움……”

작년 말, 2009 ‘꼬매고 싶은 입’을 발표한 뒤 한 매체에 언니네트워크가 기고한 글에 달린 댓글이다. 뉴스를 전달하던 아나운서조차도 어이없는 웃음을 참지 못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뽕꾸똥꾸’ 규제권고와 정치인들의 성차별적인 언행에 대해 ‘입을 껌매버리겠다!’라고 외치는 못 여성들의 분노어린 질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귀한 지면을 통해 시시콜콜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다만, 〈꼬매고 싶은 입〉을 선정하는 것으로 여성 활동가들의 밥벌이가 되느냐는 물음에는 대답할 필요가 있겠다. ‘이걸 뭐 좀 실수했다고 마녀 사냥식으로 막 몰아치는 인기몰이도 지양해야 한다’<sup>3)</sup>는 온정주의가 난무하는 한국 사회에서, 국회도, 정부도, 법원도 관심 없는 일이 돈벌이가 될 리가 있겠는가. 하지만 만약 정부에서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해 정치인의 성차별적 언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건당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너도나도 직장을 때려치우고 스스로 ‘공공의 감시자’ 역할을 자처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밥벌이가 될 만큼 차고 넘치는 게 정치인들의 성희롱과 이어지는 망발 아니던가.

---

3) 남우(전 강원도 동해시의회 의장), 2006년 3월 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중 최연희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 궤매는 것으로 끝내도 될까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2010년 ‘재봉틀상’ 후보,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

여기자 성희롱 사건에 대해 “며칠 동안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기자의 뺨을 건드렸다” (2008년 ‘재봉틀상’,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미국 나이키 본사 방문 중, 여신 동상의 가슴과 국부를 만지며 사진 촬영” (2008년 ‘본드상’,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

“얼굴 예쁜 마사지 걸은 이미 많은 남자가…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 (2007년 ‘재봉틀상’, 이명박 현 대통령)

한 여성의원에게 “남편 X이나 빨다가 그저 시의원이 돼 가지고” (2007년 ‘대바늘상’, 배학술 전 진해시 의원)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해서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했다” (2006년 ‘재봉틀상’,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

정치인들의 성추행/성희롱 보도에 대해 “또?”라는 반응이 자연스러울 만큼 여성들에게는 지겹게 반복되는 권태로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그들이 함부로 내뱉은 말에 더 이상 여성들이 상처받고 분노한 채로 남아 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문제와 잘못을 자각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꼬매입’을 발표할 때마다 외려 “할 일 없는 페미넌들”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곤 한다. 정치인들의 성추행/성희롱은 지극히 ‘일상적’이기 때문에 용인되지만,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특권적’으로 여겨지는 사회,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한 남성연예인이 공항에서 밀려드는 팬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는 뉴스에 감수성 예민한 10대 팬들이 얼마나 상처 입었을지 걱정하며 분노하는 것만큼이라도, 여성을 동등한 사회적 동료로서가 아니라 성적 대상만으로 취급하는 정치인들의 망발에 함께 분노할 수는 없는 것일까? 성

추행을 저지른 최연희 의원은 다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황,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외치던 안상수 대표가 그 최연희를 두둔했던 인물이라는 사실, 강용석 의원의 제명 건을 결정하는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주성영 의원이 '대구의 밤문화'를 널리 알린 성추행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이러한 현실에 여성들이 느끼는 절망과 무력감에 공감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일상의 성차별에 무감각하고 심지어 너그럽기까지 한 한국사회의 남성 중심성이야말로 '꼬매입'이 아무리 돈벌이가 안 된다 한들, 여성단체가 '할 일 없는 여자 상', '남자들의 주먹을 부르는 상'을 받는다면, 정치인들의 행각을 감시하고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을 멈출 수 없게 하는 이유이다. 법과 제도가 사회적 처벌을 담보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차별과 폭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정치인들의 비뚤어진 입을 꺾매고 또 꺾맨다.



# 2

## 쟁점과 입장

요즘 군대 달라졌다? : 해병대 성폭력 사건으로 본 군대 내 성폭력  
성폭력 가해자,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 대안읽기

성폭력 경험, 현명하게 공감하는 법

## 프리즘 [학교 들여다보기]

학교를 까면, 무엇이 열리나

성별화된 십대 성문화와 또래 성폭력

'대구초등학교 집단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학교 성폭력 문제

## 통계 이야기

재범(再犯)율을 재범(再犯 : 다시 옛보다)하기

## 성문화 읽기

퀴어와 함께 살아가기!



# 요즘 군대 달라졌다?

## 해병대 성폭력 사건으로 본 군대 내 성폭력

권인숙 |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요즘 군대 달라졌다!’ 몇 년간 언론이나 군대와 관련된 사람들이 군인들의 삶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해왔던 말이다.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이제는 사라졌다거나 군대 내 서열문화가 완화되어 “일병과 상병이 반말로 대화하는가 하면, 장교와 병사가 형 동생처럼 지낸다. 같은 내무반 병사들이 서로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한 부대는 선진병영문화의 모범이라면서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다”<sup>1</sup>며 개탄하기까지 하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그래서인지 최근 해병대 참모장이 한 사병을 심각한 수준으로 강제 성추행했다는 사건이 알려졌을 때의 첫 반응은 ‘달라졌다더니’ 였다. 한편에서는 ‘해병대 대령이 한 행동도 들통이 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말이지, 정말 달라졌나?’ 라는 생각도 있었다.

200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군대 성폭력 조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2010년 군대 성폭력 사건을 대할 때 우선 알고 싶은 것은 ‘달라졌나, 아닌가’ 이다. 물론 ‘요즘 군대 달라졌다’를 외치고 싶기 때문은 아니다.

1) 송홍근 “주적 없는 군대 편히 쉬는 군기 병사들 전투력 녹슨다” 주간 동아, 592호(2007. 7. 3.).

‘요즘 군대는 달라졌다’는 주장에 의지하여 무관심했던 군대 인권문화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찾아내고, 주장할 지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진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해병대 참모장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월 ○일 참모장이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모는 관용승용차를 타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쁘쁘 해 달라. 안아 달라’라며 신체접촉을 요구하였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만류로 간신히 위병소를 통과해 관사에 이르렀으나 가해자가 또다시 피해자에 ‘목욕탕에 가자. 키스를 해 달라’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뒤 좌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한 상태에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sup>2)</sup>

이 사건은 징병제 하에서 가장 일반적인 군대내 성폭력의 유형에 속하지는 않는다. 가장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주로 사병 간의 성폭력이다. 사병 간 성폭력은 발생빈도가 높아서 2004년 조사에서는 15.8%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 피해경험 비율은 조사에 응한 제대병과 현역병 모두 포함한 통계인데 제대병을 조사했을 경우 훨씬 높게 나타나 자유롭게 답하기가 힘들었던 현역병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빈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병 간의 성폭력은 선임병이 후임병에 행하는 신체적·언어적 성폭력인데, 계급 간 서열유지수단이자 생활문화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다. 우선 비밀스럽기보다는 공개적이다. 그리고 선임병이 후임병을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형태의 자연스럽게 부여된 권리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후임병을 여성과 등치시켜 새로운 남성으로

---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일부.



만드는 과정의 한 단계로 자리매김하고 있기도 하다. 계급 차이가 곧 남성화된 수준과 정도의 차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군대의 계급적 질서에 순응하게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되지만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으로 합리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난으로 사소화하더라도 후임병이 선임병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행위이고,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이런 점에서 참모장(대령)이 가해자인 이번 사건은 비공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에 계급적 서열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든가 문화의 일종으로 바라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사병 간의 작은 계급 차이에도 성폭력이 무방비상태로 저질러지는 공간인 군대에서 대령과 사병과의 계급적 차이는 어떤 의미였을까? 군대 중에서도 가장 계급 간 서열문화나 일반 규율이 세기로 유명한 해병대에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로 피해자인 사병은 권력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인 참모장이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군대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너도 죽을래’라고 위협했을 때 참모장이 의도가 무엇이었던 피해자는 정말로 죽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치명적인 이유는 서열이 가져오는 권력차가 최소한의 저항할 힘도 무력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대의 경우 성폭력은 이 철저한 무력감이 피해의 정도를 높이고 이번 경우와 같이 심한 정신적 공황상태를 불러 올수도 있다.

이번 성폭력이 기존의 성폭력과 다른 점은 가해자가 절대적 우위를 갖추는 조건에서도 문제제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군대 내 성폭력은 알려지기 힘든 성폭력의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다. 일단 남성 간 성폭력은 가장 신고율이 낮고 피해자가 알리기를 주저하는 범죄이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남성다움’을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성애자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두려움도 크다. 게다가 서열문화가 강한 남성집단에서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것은 수직적 위계관계로 맺어지는 남자들의 관계에서 자신을 하단에 위치하게 만든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은 남성 피해자에 더 가혹하거나 훈련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성폭력을 당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생리적 특수성 때문이다. 많은 피해자들은 성기 발기를 경험하는데,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가 아닌데도 발기를 경험하게 될 경우 자신의 성정체성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강제로 일어난 성적 폭력이 아닌 자신도 참여한 성행위로 간주해 버리기도 한다.

이런 일반적 이유 외에도 군대의 경우에는 신고 시 폐쇄적 집단인 군대에서 겪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004년 조사 시 군대에서 성폭력을 당하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거나 신고하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였다.

이는 단순히 신고 시 신원이 드러나는 문제만은 아니다. 군인복무 규율에 의하면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진정 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sup>3</sup>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폐쇄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고 집단 이해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군대조직 외에 피해자가 성폭력상담소나 기타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군대 조직은 문제를 무마하려고 하였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간부 3명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렸을 때도 이를 보고 받은 대대장은 ‘그냥 똥 났았다 생각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다음 날 해병대 부사단장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그 후배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 사건의 원

---

3)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

만한 처리와 합의 의해 사단장과 헌병대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라며 가족들에 은폐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은폐 의도는 사병 간 성폭력 보다는 장교 등에 의한 사례에서 훨씬 더 클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주체들이 친분관계에 매여 있고 사건이 알려지면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군 규정에서는 외부에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도 치료청원시기가 지나면 수도통합병원이나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 부대 복귀라는 것은 이전의 사람들과 생활을 같이 한다는 의미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일 가능성이 커 이후 조처에 따라 피해의식이 더 강해질 가능성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원래 복무하던 집단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병에게 여러 차원의 불이익을 행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차 피해의 여지가 높다.

이번 사건은 군대가 과연 그동안 성폭력 사건 등에 스스로의 집단적 대처 능력이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하게 만든다. 특히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 경우 은폐나 신변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크다. 이런 가능성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처벌이나 처리가 가능하려면 피해자가 성폭력 문제에 외부기관의 상담과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상담을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이나 자기혐오 등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사에서의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즘 군대 달라졌다!’ 며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느긋해질 수 있게 만들려면 한국 사회는 섬세하게 군인들의 인권보호를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성폭력 가해자,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파이 | 본 상담소 책임상담원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한 남자 친구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다. 그 친구는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성실히 이수했고, 무척 많은 여성학 서적들을 읽어치우면서 ‘페미니스트’가 된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진짜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친구는 그가 속해있던 거의 모든 공간에서 영원히 ‘배장’ 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친구는 공동체에서 성폭력으로 문제제기를 받고 억울함으로 가득 차서 피해자는 ‘잘 살고 있는데’ 본인이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호소한 적이 있었다. 뉴스를 보든 영화를 보든 사람을 만나든 성과 관련한 얘기만 나오면 힘들어하면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점점 난폭하게 변해갔다. 시간이 지나고 내가 변해가면서 그들에 대한 생각과 시선도 변해갔다. 분노와 배신감의 감정은 차차 누그러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배장’이 나와 공동체, 사회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꼬리를 물었다. 여전히도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요구사항과 사과, 보상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감옥보다 더한 감옥에서 살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왔던 반성폭력운동, 그것은 낙인을 찍어 매장시키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뿌리 깊게 존재하는 젠더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1980년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단체들의 탄생과 결집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반성폭력운동이 활성화되고 성폭력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여성운동 내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언어와 관련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서는 급진적인 반성폭력운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반성폭력운동의 역사는 기존에 말할 수 없었던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게 하고, 남성중심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강간신화’에 도전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이는 성폭력특별법의 제도와 함께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공동체 등의 일상 속에서의 젠더권력을 문제화했던 반성폭력운동의 흐름과 달리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언론 등을 통해 연일 ‘강력성범죄’가 보도되고 있고 더 흉악하게, 더 잔인하게 가해자를 그리면서 ‘정형화된 가해자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다양한 학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정담론에서는 ‘흉악범’으로, 정신병리학적 접근에서는 ‘환자’로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에까지 이르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 대한 ‘거세’와 ‘사형’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의 보수화’ 상황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 낸다. 이는 ‘강력범일수록 가정환경이 안 좋고, 학대 경험 크고, 저소득계층에, 저학력이고 등’의 도식을 정형화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유죄판결을 받지 않거나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은 가해자들의 경우는 배제됨으로써 특정 성폭력을 ‘특수화’하고, 음성화되어있는 성폭력 사건들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성폭력’과 ‘비교적 가벼운 성폭력’을 유형화하



고(그에 맞는 차별적인 논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성폭력을 양분화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해 이분화된 접근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다르게 담론화할 필요가 있다. 즉, 강력한 가해자는 ‘회복 못 할’ 피해자를 만들고, 가벼운 가해자는 별로 힘들어 할 ‘필요 없는’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싸이코패스’들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비난받고, 처벌받고, 치료될 수 있다. 필자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별 거 아니’라고 치부되는 가해자들이다. 이들은 성폭력과 성폭력아님의 경계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재수없어서’ 신고가 됐든, 아니면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든, 우리는 그들과 한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낙인찍고 ‘내다버려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옆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즉, 우리가 만든 ‘성적자기결정권’-이 개념에 대한 논의들은 논외로 하겠다-이나, 각 대학/운동/직장 내 반성폭력 규약 및 교육/상담자의 시각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가해자 교육과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외울’ 뿐이지, 오랜 시간 힘겹게 만들어 온 이른바 ‘여성주의적 인식론’, 그것까지는 차치하더라도 ‘피해자 중심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그와 관련된 언어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아 온 그들과 우리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장벽을 몇 십 년 만에 허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론 어떤 가해자들은 나에게 ‘고맙다’고 한다. 이유는 단 하나다. ‘가해자’가 되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준 사람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그럴 때면 복잡한 감정이 앞선다.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착하게’ 대했나? 이래도 되나?

그렇다고 억박지르고 혼계한다면 이들의 생각이 바뀔까? 등등의 잡념들. 어찌됐건 확실한 건 그들이 우리와 ‘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를 강요하기보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시도들,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변화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다. 본 상담소에서 실시한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은 이러한 가능성을 찾기 위한 첫 시도였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그 ‘사건’은 구성되는 것이다. 피해/가해가 아닐 수 있는 것이 피해/가해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사건으로 구성되는 것은 개인의 맥락과 사회문화적 인식과 구조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외판 섬에서 만들어진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식과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물이다. 앞서 말했던 두 친구가 한결 같이 말했던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과 낙인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원했던 것 역시 낙인이 아니라 ‘처리’의 과정을 통해 그들이 변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성폭력사건 처리방식들은 어떠한지 좀 더 성찰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도 상담소에 전화벨이 울린다. ‘이거 성폭력 맞나요?’ 언제부터 내가 재판관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어떤 것이 성폭력이고 아닌지, 그래서 어떻게 가해자를 고소하고 신고하고 벌줘야하는지 읊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다. 힘들게 만들어 온 반성폭력운동인만큼, 그것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게 지키고 변화시켜가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일 것이다.

# 성폭력 경험, 현명하게 공감하는 법

토리 | 본 상담소 회원

본 상담소에서는 올해 젠더감수성 교육프로그램인 ‘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감훈련, 〈성폭력, 얼마나 알고 계세요?〉’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성폭력 관련 법·제도마련과 여성 단체 간 연대와 이슈파이팅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담소에게 하나의 새로운 시도였다. 성폭력 경험자 혹은 성폭력 관련 실무자가 아닌 ‘선생님’ 혹은 ‘부모’라는 정체성으로 모이는 불특정 집단, ‘대중’을 대상으로 기획한 젠더감수성교육이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교육의 주제를 (더욱 익숙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 교육’으로 정했다는 것이 더 큰 모험이었을지 모른다. 그동안 활동가들이 종종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처럼 상담소가 기획하고 상담소가 마련한 공간에서 대중들을 만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교사 대상 젠더감수성 교육의 경우,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일정 전체를 취소하기도 했다. 준비미흡과 시행착오였으며 자책도 했지만, 교육 홍보에 따라온 냉담한 반응이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우리는 프로그램 홍보에 ‘젠더 감수성’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감’ 보다, ‘성폭력 예방교육’, ‘자녀 성교육’이라는 문구를 더 많이 사용해야 했다. 그 후 교육은 무사히 진행되었지만 큰 숙제를 얻은 기분에 마음이 복잡하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반성폭력운동이 될까, 다른 방식의 반성폭력운동을 시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누가 대중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가 묻는다면 속 시원히 대답할 자신은 없다. 하지만, 늘 반성폭력 운동에 내부와 외부가 있다는 것, 따라서 늘 함께하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대중’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번쯤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젠더 감수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부모 교육 참여자들은 ‘젠더 감수성’, ‘피해자와 함께 살기’라는 교육의 주제어보다, 성폭력을 예방하는 ‘성교육’이라는 단어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의 참여자들을 ‘대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폭력, 성교육, 여성, 젠더 등에 관련된 지식에 대한 ‘대중’들의 욕구 중 한 부분일 것이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연대 단체들은 법 개정 운동을 하면서도, 문제의 형사사건과 판결문에 성명서를 내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모두의 변화라고 끊임없이 설명해왔다. 이것도 나름 ‘대중’ 운동의 모습이었던건만, 그 방법들이 너무 어렵고 낯설거나 결정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아닐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우리는 누구와 운동하는가. 누구를 중심으로 운동하는가. 성폭력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성폭력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피해 이전에 있을 때는 우리와 함께 하기 어려운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제도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어떤 집단의 동의를 얻는 데 가장 노력했는가. 우리가 해온 일이 성폭



력이 발생하는 메커니즘과 담론, 경험자들을 알려내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묶거나 배치하며 존재하는지 더욱 주목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젠더감수성 교육 문의자들의 반응을 떠올려보면,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고 있기에)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았을 선생님과 부모님이지만, 성폭력을 ‘지금 당장’ 눈앞의 과제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주 간단하게, 그것은 아마도 ‘성’과 ‘폭력’이라는 두 개의 거북한 단어들이 함께 맞물리는 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다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폭력이라는 (당장 밥 먹여주지 않는) 것에 무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팍팍함 때문일 수도 있다. 단순한 비교를 하는 것은 우습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십일 자 걷기가 건강에 좋습니다’라는 정보를 얻으면, 우리는 단 하루라도 몸의 습관을 바꿔보곤 한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도 내 삶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면, 더 많은 ‘대중’들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운동에서 만나게 될 수 있을까. 한 개인이 자기 삶에서 문제로 설정하고 에너지를 쏟는 것들은 아주 다양하지만, ‘건강, 외모, 진로’ 같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사회적 무게감이 덜한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평소 나와 ‘폭력’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을 일이다. 폭력을 예상하고 산다는 것은 참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언제 가까이 올지 모를, 세상을 돌고 있는 하나의 트랙이라면, 차라리 직면하는 것이 낫다. 언제까지 내가 지금의 거리를 유지하리라는 법이 없고, 만약 그 순간이 닥쳐왔을 때, 스스로 폭력의 상황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면 폭력의 힘은 약해질 것이다. 성폭력도 그리 다르지 않다. 어느 한 못된 가해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

의 규범적인 섹슈얼리티, 즉, 내 문제이기도 하다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위해선 보다 정교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사실 진짜 고민은 더욱 가까이에 있는 것 같다. 성폭력을 자주 보는 우리 활동가들이 접하는 세상은 성폭력으로 의미화 되는 영역이 비교적 분명하게 눈에 띄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시민(이 글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대중)에게는 그렇지 않다. 해고조치가 두려워 상사의 성희롱을 참는 여성은 단순히 피해자로만 볼 수 없다. 어쩌면 그는, ‘욱’하지 않고 그 순간을 잘 견뎌낸 자기 자신을 다독거릴 것이며,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콕 집어주지만 앓는다면, 직장생활의 한고비를 잘 넘겼기에, 편안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더불어 기득권과 지배 담론에 대한 비판과 들춰내기의 역할이 점점 외면받고 곱해되는 시류에서, 우리에게 다른 운동 전략에 대한 구상이 더욱 필요하다. 이것은 타협이거나 순응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되, 실천 전략을 변화시켜 보는 것이다. 물론, 활동가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진다. 요약하자면, 성폭력과 거리를 좁혀, 내 공간의 문제로 떠올리는 상상력을 가능케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다양한 시민에게 이 상상력의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과는 다른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영화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관객의 긴장(공감)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켜야 성공하는 스릴러 장르도 많이 제작되고 있다. 그동안 개봉한 스릴러 영화 중 연쇄살인을 소재로 삼는 작품들은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동반한 폭행과 살인을 보여줬다. 관객들은 이 영화들을 보면서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반면 더 자극적인 반전을 기다리기도 한다. 더불어 모두 스크린 속 피해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도 아니다.

범행 장면과 동기 등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보다 더 선명하게 관객의 머릿속에 남겨진다. 여성 대상 범죄들이 익숙하고 보편적이며 돈이 되는 소재로 (대부분 남성 작가들을 통해) 문화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화적 재현이라는 이유로 그냥 받아들일 순 없는 문제이다. 그 속에 피해 여성들은 상처 입은(훼손된) 존재로서만 전시된다. 매일 접하는 뉴스 역시, 마치 과거엔 없었던 일 마냥 성폭력 사건을 낯설고 특이한 사례들로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 드러내기에만 집중한다. 이러한 영상과 정보를 접하는 시민들은 다시 또 한 번, ‘가해자 처벌 수위’에만 공감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 시민들의 사고를 꼭 메우고 있는 이 ‘소재로써의 성폭력’에서 우리는 어떻게 틈을 찾아 균열을 낼 수 있을까. 이러한 정보들 사이에서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는 단지 성폭력사건의 통계 결과로만 나타나는 듯하다. 반성폭력 운동 외에 ‘다른 영역’의 목소리들에 때론 주목해보면서 조금씩 다른 실천전략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활동가들의 고민과 짐이 늘어가는 만큼, 성폭력 담론의 변화도 함께 발을 맞추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 { 학교 들여다보기

뉴스를 통해 학교 공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들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언론은 폭력성과 성적인 행동을 가해학생들의 특징으로 거론하고, 사건에 대한 학교 당국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고는 한다. 사회는 가해학생들의 잔혹함에, 피해학생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에, 정부 기관에 대한 분노에 들썩인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일상적이며 근절해야 하는 교육현장의 문제로 여기면서 학교 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아' 집단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는 성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닮아있다.

학교 성폭력을 염려한다면 사건이 발생하는 맥락은 덮어둔 채 불안해 하고 한탄만 할 수는 없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속해있는 '학교'라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와 문화를 무시한 채 '어른'들과는 다른 대상으로서의 10대-학생을 상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호 <프리즘>에서는 학교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 '학교'를 키워드로 세 편의 글을 마련했다. 이어지는 글 두 편에서는 통제와 감시, 경쟁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공간에서의 폭력과 차별, 변화하는 10대 청소년의 성적실천과 학교에서 체득하는 성별규범이 어떠한 맥락에서 성폭력으로 연결되는지를 알아보고, 변화를 위한 고민을 나눈다. 나아가 마지막 글에서는 실제 학교 성폭력 사건의 지원과정을 통해 드러난 교육 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아무쪼록 이번 호 <프리즘>을 통해 TV화면에 등장하는 문제대상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숨쉬며 현재를 살아가는 '학교 속 10대 청소년'과 나란히 서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학교 성폭력 문제를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바로 여기부터가 시작이다.



# 학교를 까면, 무엇이 열리나

한날 |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전부다. 전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소중한다는 뜻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비율에 있어서 압도적이라는 의미다. 지난 2009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진행했던 학생인권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중학생의 경우 약 8시간, 고등학생은 약 12시간에 이른다. 수면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것이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공간 역시 대부분 학교라는 것을 뜻한다.

‘무난한’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본 이들에게 위의 이야기는 아마도 새롭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수치화된 통계로 만난 것뿐이므로. 그러나 청소년은 곧 학생이며,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공식이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만난다는 것은 아마도 새로울 것이다.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자신의 원함과 상관없이, 한 장소에 묶여 있는 것은 강제 노동이나 구금과 무엇이 다른가? 영장도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휴대폰 등 사적 소유물을 압수하는 것을 교육적 행위라고 볼 수 있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고 성적표를 집으로 발송하는 것은



는 고문의 일종으로 본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1996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횡행하는 체벌이 문제인 것은 단지 ‘글로벌 스탠다드’인 인권 기준을 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체벌은 단순히 매질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철학의 문제고, 학생들에게 다른 아닌 노예의 도덕을 학습시킨다. 100대가 아닌 단 한대의 체벌로도 학생들의 인격이 무너지는 이유다. 최근 체벌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논해지는 상벌점제(그린 마일리지)도 노예의 도덕을 뒤집지는 못한다. 체벌의 사유가 되었던 항목들이 별점 항목의 자리로 옮겨갔을 뿐 교직을 의심하고, 개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고민하고 만들 권리를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복종의 문화는 학생들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교는 고학년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저학년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곤 한다. 고학년부터 급식을 배식하는 일, 고학년 학생들로 선도부를 꾸려 저학년 학생들의 품행을 단속하고 별점을 매기도록 함으로써 우월의식을 갖게 만드는 일은 학교의 흔한 풍경이다.

### 능력주의의 신화 -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나?

수능이 끝나고 입시 결과가 발표되면 언제나 학교 앞에 커다랗게 나붙는 명문대 합격생 현수막. 매일같이 교문을 통과하며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성적은 곧 능력을 의미하며, 능력은 노력의 결과다. 그러므로 성적에 따른 차등대우는 공정한 보상이며 차별이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 공부 잘하는 소수의 잘나가는 학생들을 보며 다수의 ‘잉여’들은 가슴을 다독인다.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걸 누구 탓을 해?

학교는 다양한 차별의 집합소지만, 그 차별이 드러나는 양상은 성적 혹은 성과를 경유한다.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표면적 이

유는 장애가 아니다. 가난한 학생이 학교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표면적 이유는 가난이 아니다. 교사들, 그리고 동료 학생들마저 이들을 학교 또는 학급의 걸림돌로 여기는 이유는 ‘찌질’ 하기 때문이다.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대회에 나가 상장하나 받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장애학생이 체육수업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는지, 왜 가난한 학생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지 고려되지 않는다. 이들이 ‘뒤처지는’ 이유는 구조의 문제가 아닌 오로지 개인의 노력 문제로만 남는다. 이들 앞에서 강조되는 건 자신의 소수성을 극복하고 성공한 몇몇 개인들이다. 너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하는데? 핑계대지 말고 일단 열심히 해봐.

학교 안의 능력주의는 차별화된 위치를 객관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폭력이다. ‘능력이 공정하게 길러지나? 학력이 처지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것인가? 업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능력은 쓸모없는 것인가?’ 와 같은 질문에 학교는 답하지 않는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업 성과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 이제는 교육이 계급 상승의 통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론 학생들은 몸으로 알고 있고, 이를 몸으로 실천한다. 조금만 참고 노력하면 대학가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뼈 빠지게 공부해도 결국 상위 3%를 제외하곤 또다시 뼈 빠지게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해야함을 알고 있다. 자신의 욕망을 유예하지 않고, 훈육을 거부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학업 중단자의 숫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출의 증가와 저연령화는? 학교 밖을 보지 않고 거짓된 희망의 주문을 외우는 것만으로 학교를 떠나가는 청소년들을 설득할 수 없는 노릇이다.

## 동전의 양면 - 무기력과 폭력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짓밟아야하는 ‘배틀 로얄’의 원리에 충실한 학교.



이 거대한 학교 구조 앞에서 학생들은 쉽게 무기력해진다. 상대적으로 학교의 원리에 잘 적응한 친구들은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재네들 좀 때리세요. 그래야 말을 듣죠.” 학교가 진정 무서운 건 학생들 스스로 통제를 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다 출소한 사람들이 통제가 사라진 후 남은 적막감과 불안감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또는 살기 위해 이렇게 오지랖을 펴기도 한다. “다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가정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어찌됐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존하고 있다.

물론 이 생존의 과정이 아름답지만은 않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로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자신에게 협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패가 쥐어져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 무게를 해소하려 한다.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와 피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위 가해자로 호명되는 학생의 경우, 학교나 가정에서 자신 역시 유무형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누가 줄곧 학생 간 폭력의 피해자로 선택되는가?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재요? 찌질해서 따돌렸는데요. 아시잖아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학교 안의 중요한 문제로 차별을 꼽은 경우는 3.3%에 머물렀다. 학생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학생들 사이의 위계를 만들어내는 학교가 “그래도 친구니까 서로 감싸줘야지.”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다. 아니 가식이다.

### 솔직하게 까발리기 - 학교는 순수한 아이들의 섬이 아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몇몇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개념 없는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인권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대

세를 이루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 보수 언론들은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를 보도하며 청소년들의 도덕적 타락과 폭력성을 강조해댄다. 모든 청소년은 폭력적인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일부 청소년들의 사례를 모든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징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논리이므로. 다만, 실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는 잔혹한 부분이 있다. 이는 단지 물리적 폭력의 수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폭력은 다분히 ‘어른스럽다’. 교묘하고,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사람은 도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덕조차 빗겨간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무개념을 탓하기에 앞서 학교를 들여다봐야 하고, 사회를 들여다봐야 한다. 아니, 사회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 처절한 권력적 공간으로서 학교를 읽어내야 한다. 왜 청소년들이 삶이 아닌 생존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생존의 전략으로 차별과 폭력을 택하게 되는지. 그 일차적 대답은 학교를 까야 열릴 수 있다.

학교는 순진무구하고, 해맑은 아이들의 외판 섬이 될 수 없다. 학교라는 거대한 구조의 폭력을 외면하고, 학생들에게 예절과 도덕만을 훈계하는 방식은 지금의 끓아터진 상처를 더 깊게 할 뿐이다. 인권과 도덕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방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권감수성은 내 안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타인의 고통에 공명하는 경험을 통해 길러진다. 평등한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경계를 확장하는 일은 불편함을 동반한다. 그 불편함은 혼란과 갈등의 모습을 띄고 학교 안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인권도, 평화도, 조용히 찾아오지 않는다. 다양한 권리주체들의 충돌과 들쭉임 속에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유의 감각을 되찾는다. 억압과 편견의 독을 빼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람은 성숙한다. 그렇다면 학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시끄러워져야 한다. 위장된 평화는 억압의 결과일 뿐이므로.

# 성별화된 십대 성문화와 또래 성폭력<sup>1)</sup>

김백애라 | 순천향대 여성학 강사

## 학교 내 여/남학생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성별화

학교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습득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것을 습득토록 하는 중요한 장으로, 여학생에게는 남학생과 다른 성규범이 주어진다. 학교는 여성들을 통제하고 처벌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의 성적 경험을 구성하는 주요한 현장이며, 여성들에게 ‘성’을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을 형성시키는 공간이다(김현미, 2002). 학교는 교육의 이름으로 여성에게 성역할을 습득하도록 하며, 성 규범에 대한 것 역시 많은 경우 학교를 통해 배우게 된다.

학생의 성과 관련하여 남학생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남성이기 때문에 통제대상으로서의 학생과 성적으로(sexually) 자율적일 수 있는 남성이라는 두 정체성이 공존함으로써 모순되는 지점이 드러난다면, 여학생의 경

1) 이 글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학교교육현장에서의 여학생의 규범에 대한 협상과 성적 경험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우는 통제되어야 할 학생으로서의 성규범과 여성으로서의 성규범이 비교적 맞아떨어지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차별적 전제가 학생들의 성별화를 더욱 부추긴다. 또래 성폭력이나 교사에 의한 성폭력 역시 이러한 성별화 된 현상 중의 하나이다.

## 10대 성문화의 변화경향

근대 이후 10대는 학교 안의 학생으로, 규제 대상인 미성년으로, 비행 청소년/문제아로 범주화 되어왔다. 그러나 소비자본주의와 대중문화, 사이버 공간의 출현 등은 10대들에게 학생이라는 정체성 외에 다양한 정체성들을 부여하였다. 학교와 집 외에 자신을 표현하고 정체화 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들을 통해 기존의 학생으로서 가지는 관계와 경험을 넘어 다양한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새로운 문화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팬으로, 스타일이 좋은 얼짹/몸짱으로, 연애 잘하는 아이로, 이들은 학생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 자신을 정체화 한다.

2000년도 이후 10대 연애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연애의 ‘유행화’가 시작되었다. 10대 여성들 사이에서 연애는 놀이 문화의 일부이다(조혜정, 1995; 김은실, 1997).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학교의 규범이나 학업, 교사로 부터의 인정 뿐 아니라 옷을 잘 입는 것, 머리스타일, 남자친구에게 받은 선물, 연애, 성적 실천 등이다. 연애를 시작하고 그에 맞는 데이트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옷을 쇼핑하다 보면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끼게 되고 자신감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래 사이에서 ‘괜찮은 애’, ‘인기 많은 애’로 평가되는 준거가 된다. 또래 평가는 또래 문화에의 소속감과 이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 및 또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대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 10대 성문화와 또래 성폭력

2000년대 이후 또래의 연애와 성 문화는 늘 언론의 주시를 받을 만큼 학교와 사회의 지배적인 성 각본으로부터 차이를 만들어왔다. 특히 학교의 ‘학생’ 규범과 다른 성적 실천과 이에 대한 인식은 학교가 만들어 놓은 ‘학생’이라는 범주와 다른 문화를 만들어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모범생과 불량학생을 구분하는 선은 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어졌다(조윤정, 1996). 그러나 현재 10대에게 성적 실천은 모범생이나 불량학생으로 분류하는 요소가 아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성적인 실천을 학생답지 못함에 연결시키지만, 적어도 또래 내에서의 성적 실천에 대한 인식은 기존 규범과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10대 문화에서 연애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흔히들 하는 것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키스는 보통 연애하면 다 하는 것으로, 대부분 중학교 때 가장 많이 한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첫 키스로는 늦은 것이다. ‘키스 그 정도’는 큰 고민거리이기 보다는 ‘좋아하면 그냥 다 하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것이다. 10대들은 또래 집단 속에서 함께 즐기는 놀이의 한가지로 성적 행위를 하고 있으며, 성적 실천을 놀이 의례의 한 부분으로 위치지움으로써 성적 행위에 부가된 사적이고 개별화된 기존의 의미를 바꿔 내고 있다. 이들에게 성경험의 의미는 연애가 보편화되고 성적 실천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뒤바뀌기도 한다. 이들에게 성은 더 이상 출산이나 결혼과 관련된 행위 혹은 잘나가는 아이들의 과시적 행동이 아닌 것이다. 즉 또래 내에서 이미 성은 성스러운 것이나 부끄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놀이, 과시,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꺼리이다.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경향이 짙은데, 이는 남성다움, 남성적 능력을 성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전통적인 남학생 문화가 계

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다 90년대 후반 이후 성적인 정보와 이미지의 범람으로 더욱더 노골화되고 있다. 특히 교내 성폭력은 대부분의 경우 여성을 잠재적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남성적 성문화를 표상한다.

남학생들이 야동을 돌려보거나 실제로 전화방 등과 같은 곳을 통해 성매매를 한다면, 여학생의 경우는 최근 야동을 보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로맨틱한 영화나 소설, 만화 속의 로맨스가 가미된 성적 묘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친구들과의 성적 실천에 대한 공유 역시 자신의 성적 경험을 과시하는 남학생과 달리 키스나 포옹 등 소위 가벼운 정도의 성적 경험만을 공유하는 등, 사랑이나 좋아하는 감정을 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 각 급 학교 교내 청소년끼리의 성폭력 사례

##### 초등

- 5학년 - 남학생이 다른 친구의 성기를 만진 경우
- 6학년 - 남학생이 여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경우
- 6학년 - 남학생이 디카폰으로 자신들의 외부성기를 클로уз업해서 찍고 돌려 본 경우
- 6학년 - 수련회에서 남녀 학생이 옷 벗기 게임을 하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얼떨결에 여학생들이 속옷까지 벗었다가 나중에 교사에게 피해를 호소한 경우
- 6학년 - 남학생이 학습 부진아이며 사회성이 떨어지는 5학년여학생을 성폭력한 경우
- 남학생이 1-6학년까지 5명의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한 경우
- 남학생이 지속적으로 6학년 여학생을 성폭력 한 경우

##### 중등

- 남학생이 지나다 스치는 등의 행동을 가장해 여학생에게 의도적인 신체접촉을 한 경우
- 남학생이 계단을 올라가는 여학생의 치마 속을 디카폰으로 찍은 경우
- 여고생이 자신의 학급 친구들이 체육 전 후 옷 갈아입는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경우
- 남학생이 또래 여자 친구 및 후배 여학생을 협박하여 상습적으로 성추행, 성폭력한 경우
- 이성 친구간의 성폭력에 의한 임신, 낙태
- 음란물 장면을 그려서 친구들에게 돌리거나, 음란 동영상 내용을 흉내 등 급우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 학교 홈페이지에 동기 여학생의 이름을 도용해 상담을 빙자한 음란한 글을 올리는 경우
- 특수학급 학생이 자기 관리 능력 부족으로 교실 내에서 자위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즐겨 급우사이에서 성폭력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례들은 10대들이 성적인 것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서가 아니라 공개된 놀이로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다. 동시에 성적 표현이 점점 자연화, 노골화되고 있으며 주변의 누구나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소비자본주의와 대중매체, 사이버 공간 등으로 이미 성적 이미지에 노출되어 있고, 연애 등으로 성적 실천이나 성이라는 것을 무조건 어렵거나 숨겨야 할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며, 동시에 이러한 성적 정보의 홍수 속에서 10대들이 정작 어떤 것을 취사할 것인가에 대한 성교육이 부재함을 드러낸다. 즉, 또래 성폭력은 성적 정보와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성찰 없는 성적 대상화의 문제를 포함한다. 또래 성폭력이 기존의 남녀의 보편적인 구도 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남성 중심적 성적 대상화가 10대들에게 성별에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십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단순히 문제 중심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맥락적으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보여준다. 십대들의 성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의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폭력예방 교육은 앞서 본 십대들의 문화 속에서 별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십대들 사이의 성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대들과 함께 그들의 성욕구와 성적 판타지, 성정체성, 성별화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폭력이라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만나지 않는지 분석해야 한다. 이는 미래에 우리 자리를 채울 십대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성폭력을 이해하는 틀을 좀 더 맥락적이고 성찰적으로 알게 해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애라, 2006, “학교교육현장에서의 여학생의 규범에 대한 현상과 성적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실, 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김현미, 1997, “여성주의 성교육을 위한 모색”, 『한국여성학』, 13(2), 한국여성학회  
조한혜정, 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Haug, Frigga, 1983, 『마돈나의 이중적 의미-슬레이브걸과 일상적 성사회화』, 박영옥 옮김, 인간사랑, 1997

# ‘대구초등학교 집단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학교 성폭력 문제

허복옥 | 본 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sup>1)</sup>

2008년 4월 같은 학교 학생 다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 지역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여러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사회의 성차별적 문화에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관해서 실질적인 종합적 예방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대구초등학교 집단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개요 및 지원과정을 살펴보고 교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2008년 당시 ‘대구초등학교 집단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대책위 활동을 하며 피해자·가해자 상담을 진행함.



## 사건 개요

2007년 11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적인 행위를 따라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교사가 음란물을 보는 아이의 명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성 간의 성폭력이 있음을 알았다. 남학생들은 음란물에서 보이는 행위를 동성 간에 그대로 따라 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상급생이 하급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하급생에게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학대 행위를 시켜 동성 간 강제추행으로 확산된 것이었다. 2008년 2월부터는 여학생의 피해사례도 확인되기 시작했다. 피해 학생들은 근처의 학교운동장, 공터, 놀이터에서 집단적으로 성적 학대를 겪었으며, 하지 않으려는 아이는 매를 맞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해당 교사는 관련 행위가 학교 폭력에 성폭력이 결합된 심각한 사건임을 인지하고 학교와 교육청 등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은폐하고 축소하여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실제로 가해 학생들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진술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저학년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 대책위원회의 대응

2008년 4월 중순 대구지역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여 대응했다. 대책위 차원에서 해당 학교 전교사대상 대책연수를 가졌고, 해당학교장은 경찰서에 전면수사를 의뢰하여 관할경찰서에서 아동성폭력 수사전담팀이 구성되었다.

이후 대책위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교육청·경찰청의 제대로 된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해당학교가 대책위에 성교육을 요청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대상 성교육, 교사와 학부모 대상 성교육이 이루어졌다. 치유를 목적으로 한 상담과 교육에 대한 대책위의 요구는 당초 교육청에 의해 반려되었으나, 2008년 하반기에는 수렴하여 대구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방문하고 대책을 수립한 뒤 국회상임위원회가 열렸고, 중앙정부기관과 경찰청, 교육청의 대책간담회가 열렸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해당학교를 방문했으나 이후 어떠한 가시적 대책도 조사단도 파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수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2008년 9월 초에는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학부모는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대책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2009년 3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9월 10일, 일심에서 승소했다.

## 문제 1]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

금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학교는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해당 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 받았더라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축소·은폐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는 경우 또한 다반사다. 이것이 학교 성폭력에 대응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이 사건의 경우 2006년 겨울부터 학교 내 폭력사건이 인지되었고, 2007년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11월 사건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지켜보고 직접 상담한 담임교사들의 문제제기는 학교장을 거치고 지역 교육청, 시도교육청을 거치면서 점차 축소·은폐되었다. 사건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사건을 접한 교육청도, 학교도, 교사도 학부모도 모두 성폭력 사실을 믿고 싶어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성폭력 피해를 말하는 교사와 대책위원회에게 ‘그 사건을 보았느냐? 아이들의 말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느냐?’라는 태도로 성폭력 피해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했다. 용기 내어 성폭력 사실을 이야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를 비난하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사건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교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학교와 교육청은 ‘학교에서 어린학생의 장래를 생각해 교육적 차원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그만 소극적 대처가 된 것 같다’<sup>2)</sup>는 발언을 했다. 피해학생에게는 순결이데올로기가 깔려있는 ‘조심스러운 보호’를, 가해학생에게는 행동을 축소하고 은폐하여 가해한 사실을 ‘없음’으로 만든 ‘장래를 생각한 교육자적 차원의 조치’는 학교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차원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 문제 2]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

학교성폭력의 특징은 폭력과 성폭력, 집단따돌림이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하급생이 상급생에게 성폭력을 하도록 강요하고, 하지 않으면 폭력을 겪고 집단따돌림을 당했으며 그 연결고리는 초등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

---

2) 김도연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발언 (국회사무처(2008),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73회 국회, 본회의 (2008.5.9))

나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져 있었다. 가해학생이 가해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정보를 제공하면 폭력을 겪는 등 공동체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교육청이 사건에 대해 동성 간에 일어났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며 학교폭력은 더더욱 아니며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 일<sup>3)</sup>이라고 판단한 것은 또래문화의 특성과 성폭력에 대한 해당 교육기관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준다.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받은 교장이 가해학생을 불러 위인전을 읽힌 대응방식만 보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책위는 상담과 성교육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당초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대신 교육청 소속 상담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담하도록 했다. 이 또한 대상자인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유 관련 상담이나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또래 잘 지내기, 자존감 향상, 서로 칭찬하기 프로그램 등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단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은 대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인식부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었다. 더불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치유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대책위가 요구하는 상담과 교육을 차단시키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태도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관료적인 교육행정의 한 단면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변하고 있다. 그들의 성문화, 성의식 또한 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관료들은 여전히 예전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 사건은 학생들을 책임지지 못한 일선 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과

---

3) 『10대 집단 성폭력 특성과 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p.2, 2008.



는 동떨어져 자기 본위로 몸을 사리는 교육관료들의 문제였다. 해당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펼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인식 등이 총체적으로 부재했던 것이다.

### **학교 성폭력, 현장의 변화가 필수적**

당시 대책위는 학교 성교육 전문가의 양성과 교사 성교육의 의무화,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문책 등 학교 성폭력 사건의 대책에 대해 다각적인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전 학년 대상 성교육을 대구시 전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것은 소기의 성과였으나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현재의 생물학적인 성교육에서 벗어나 10대의 성문화와 성의식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폭력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배치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성폭력의 통념 변화와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환경,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교사 및 교육 관계자들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우리 아이들이 폭력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

# 재범(再犯)율을 재범(再犯) 다시 엿보다)하기

나눔터 편집팀

“우리나라에선 강간범죄가 2008년에만 1만 5094건이 발생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성폭력은 재범률이 60%에 달해 많은 나라에서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기 형 이상의 엄한 형벌에 처하거나... 화학적 거세를 하고 있다.”(조선일보 2010.7.4)

“전자발찌의 효과는 이미 입증이 된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제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범 616명 가운데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재범자는 단 1명으로 재범률이 일반성폭력 재범률 35.1%, 일반성폭력 동종 재범률 5.2%와 비교해 매우 낮다.”(연합뉴스 2010.7.14)

위는 소위 ‘전자발찌’ 법 개정과 ‘화학적 거세’ 제도의 입법을 지지한 시론들의 일부이다. 불과 열흘 간격으로 기사화된 이 시론들은 한쪽에서는 60%, 또 한쪽에서는 35.1%라는 재범율을 언급하고 있다.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90%의 재범율을 언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재범율을 말함에 있어 이렇게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왜일까. 전문가나 학계의 연구 이외에도, 수사기관의 통계는 얼마나, 어떻게 공식적일까. 무엇이 사실인가 혹은 사

실에 가까운가.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치료감호법〉,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 성폭력, 특히 아동성폭력 예방/가해자 처벌과 관련해 최근 2년 사이 제·개정된 법정책은 이외에도 여러 건에 이른다. 가해자 인권의 과도한 침해,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 교정교육의 부재, 사회전반의 공포 조장, 정부의 규제적 성향 강화, 성폭력을 일부 비정상 가해자의 문제로 치부하는 문제 등 정책에 대한 여러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재범율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여론의 공감을 얻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시론들에서처럼, 재범율을 인용함에 있어 각기 다른 수치들에 근거하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조사들에 의지해 정책이 수립된 것이라면 이는 무엇 때문이며, 또 그 결과는 어떠할까. 이에 대한 답을 여기서 모두 내릴 순 없겠지만, 위의 질문들을 품고, 짧게나마 이 글에서는 재범율 조사와 해석에 대한 몇 가지 우려점, 고려할 점 등을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짚어본다.

한국의 경우 재범율 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많지 않은데 비해, (이는 국내 재범율 추산의 정확성, 통일성을 말해준다기 보다는 질적인, 다양한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관련 정책 도입의 근거로 주로 인용되는 미국 사례의 경우, 재범율 통계수치는 물론 수치를 해석하는 입장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 재범율 통계화 과정의 문제로 우선 연구 방법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재범율에 대한 서로 다른 수치들은 연구들이 사실 각기 다른 대상을 연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Kunz, 1997). 이는 자료수집 방식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크게 수사기관의 공식기록, 법원의 기록 등을 대상으로 재범율을 파악하는 경우, 고소/고발되지 않은 범죄를 포함하기 위해 피해자 그룹을 조사하는 경우, 가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적

연구를 하는 경우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조사대상의 차이는 자연스레 재범율 수치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을 같게 설정한다 하더라도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같은 추적연구 방식에서도 가해자 석방 후의 추적조사 기간에 따라 재범율 수치가 상이한 것이 그 예다. 석방 후 추적조사 기간이 길수록 재범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 연구 내에서도 연구대상자별 추적기간을 다르게 조사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대상자 설정 방식 이외에도 재범의 개념,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역시 관건이 된다. 재범 이후 체포여부, 유죄확정 여부를 포함할 것인지, 재범의 내용을 성폭력 범죄에만 한정하는지, 다른 범죄유형을 포함하는지, 성폭력 범주 내에서도 같은 유형의 범죄만을 포함하는지, 일반 성폭력범죄도 포함하는지 등에 따라 수치화된 재범율의 차이는 현저하게 커진다. 한 연구에 의하면 다른 범죄를 포함시켰을 경우와 강간 사건 재범율에 한정하였을 경우, 각각 52%와 8%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Lieb 외 1998).

재범율 연구 간의 혼란스러운 차이는 일부 연구는 가해자, 가해, 피해 유형을 구분하고 다른 연구들은 이를 구분하지 않는 데서 오기도 한다. 한 발표에 의하면 특정유형의 성폭력범죄는 다른 유형의 성폭력범죄보다 재범율이 높은 경향(미 법무부 교정관리국 2001)을 보인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근친강간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가해자의 재범율은 낮은 것으로, 여러 성범죄 유형을 보이는 가해자의 재범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Quinsey, Berliner 1995), 이렇듯 어떠한 요소의 반영여부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추적연구의 경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강간 재범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희롱 재범율이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Prentky 1997).



한편 가해자 그룹을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 요소에 따른 재범율의 차이도 유의미한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법 제정의 정당한 근거로는 주로 일반적 재범율이 사용되지만,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일반화된 요소 외에 가해자의 성장기의 경험,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 성과 인권에 대한 인식 등의 요소들이 실제로는 개별 가해자의 재범여부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 역동, 연구대상·재범율의 범위 등의 반영여부는 재범율 조사들이 왜 일관되지 않은지를 설명해준다. 연구결과의 차이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연구들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높은 재범율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특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낮은 재범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각각 통제·조작·해석하고 선택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닌다. 때문에 관련조사를 수행하고 해석할 때, 어떠한 문제의식으로 어떤 요소들을 통제하고 반영하였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러난 재범율을 읽고 해석하는 작업, 그 뒤에 숨겨진 숫자를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성폭력 이슈를 바라보는 각자의 이해와 가치관, 바람이 작용하는 복잡하고 또한 복합적인 과정이다. 그렇다면 피해자 지원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 재범율에 대한 통계수치는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 성관계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가해자, 권력행사의 방식으로 성을 사용하는 가해자, 분노와 적대감의 표현으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 이들의 차이와 재범 위험성을 통계수치에는 어떻게 담을 수 있나. 무엇이 사실인가. 사실에 좀 더 가깝게 가기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과 연구방식은 무엇일까.

# 퀴어와 함께 살아가기!

홀릭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

미진이와 지연이는 오랜만에 만나서 영화를 보고,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다.

미진 \_ 영화 오나전(완전) 재밌지? 어땠어? \*빈 너무 너무 멋있더라.

지연 \_ 으응…… 재밌긴 했어. (하지만, \*빈보다는 그 옆의 여자가 더 섹시 했어)

미진 \_ 원빈의 아름다운 몸매 봤어? 식스팩에 어쩔 비 맞아도 멋있고, 피 흘려도 멋있고, 머리카락을 잘라도 멋있어. 나도 그런 잘 생긴 남친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지연 \_ (흠…… 그랬구나……. 난 그 섹시녀 보느라 \*빈 따위 눈에도 안 들어오던데…….) 너 남친 그래도 잘생겼잖아. 아직도 만나지?

미진 \_ 응, \*빈만큼 잘 생긴진 않았지. 참참 너 아직도 남친 없어?

지연 \_ 으, 응……. 남친은 없자…… (하지만, 여친은 있는데…….)

미진 \_ 이제 우리 나이도 30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으이구 내가 소개팅 시켜줄까? 남친의 절친(절친한 친구) 있는데……. 연락해볼까?

지연 \_ 아……니, 관심 없어. (나.. 3년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있는데…….)

미진 \_ 너는 눈이 높아서 그래. 눈좀 낮춰봐. 혼자 그렇게 외롭지도 않아? 참, 너네 집은 아직도 거기 혼자 살아?

지연 \_ 아니, 친구랑……. (친구는 아니고…… 그녀하고.)

미진 \_ 그렇구나 그 친구도 아직 결혼 안했어?

지연 \_ 응. (결혼을 어찌 할 수 있을까?)

친구끼리 할 수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렇다. 지연이는 동성애자다. 하지만 아직 커밍아웃 하지 않았다. 당신이 지연이라면, 당신은 커밍아웃 할 수 있을까? 커밍아웃이라는 말은 “벽장에서 나오다(come out of the closet)”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가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벽장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짧은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성애자일 것이라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간다.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은 그 전제를 배신하는 행위다. 이성애자일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다. 여자에게는 남자 친구가 있을 것이라는(있어야 한다는) 전제, 남자에게는 여자 친구가 있을 것이라는(있어야 한다는) 전제, 그 전제만으로 동성애자들은 사소한 질문에도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는가? 어떤 말들을 하는가? 그 말들은 누구를 소외 시키고, 배제하는 말들인가? 당신은 주변에 게이나 레즈비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사실은, 당신의 주변에 있을 지도 모른다. 당신이 모를 뿐. 성적소수자들이 커밍아웃 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당신이 동성애자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세상에서 지연이가 하는 속말들을 말할 수 있을까?

공중파 주말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가족 안의 동성애자를 그린 ‘인생은 아름다워’가 종방했다. 게이 커플이 손을 잡고 바다를 걸으며 사랑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TV 드라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참 놀라운 일이다.

다. 드라마 20회에서 태섭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커밍아웃하는 장면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욱 슬프고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커밍아웃하면서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말하던 태섭의 모습은 대부분의 동성애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은 대부분의 부모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아버지라면 한 대 때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아들을 안는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 왔다. 그렇게 태섭의 커밍아웃은 아름답게 받아들여졌다. 반면, 경수네 가족은 태섭의 가족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이다. “나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 안할 테니까 너도 고아로 살아라, 이 나쁜 놈아!”라고 쪽지를 쓰고 떠나는 경수 어머니와, 경수 때문에 동생이 파혼당하고 약 먹고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는 상황은 오히려 현실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더욱 막막하고 답답하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태섭의 커밍아웃을 방영하는 시간에 내 주변의 동성애자들 중에는 눈물도 맘껏 흘리지 못하고 탄짓을 하며 티비를 보는 사람이 많았다. 레즈비언인 한 친구는 정작 열심히 티비를 보고 우시는 어머니에게 정신 사납게 키워만 연신 깎아 대며 먹으라고 내밀었다고 한다. 부모님과 함께 티비를 보는 동성애자들은 사실 맘 놓고 울지 못하고 채널을 몰래 돌리기도 한다.

태섭 가족과 경수 가족의 반응 중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감히 말할 수는 없다. 동성애자나 가족이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은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태섭의 가족들이 가족 안에서 태섭을 받아들이는 모습까지만 보여주지만, 태섭의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어머니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집 아들은 의사라면서 아직도 장가를 안 갔어? 내 조카 있는데 소개 시켜줄까?” 동성애자들이 받는 질문을 고스란히 가족들도 받는다. 하지만 이미 커밍아웃한 아들을 둔 어머니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은 동성애자야” 이렇



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2007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가족들을 위해 ‘한국에서 성적소수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패널로 자리 해주신 분들은 동성애자의 친구, 동성애자의 언니, 트랜스젠더의 동생, 동성애자의 어머니 등이었다. 그리고 커밍아웃한 일본의 레즈비언 정치인 오츠지 카나코씨와 그의 어머니 오츠지 타카코씨가 참여해주셨다.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던 한 부모님은 두 자녀가 모두 MTF 트랜스젠더<sup>1</sup>였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시길,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으로 회상하는 것은 타국에서 홀로 수술하고 돌아온 딸의 모습을 보았을 때고, 딸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수술할 때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많이 남는다고 하셨다. 또한 두 번째 아들이 자신도 MTF라고 커밍아웃 했을 때 두 아들을 잃는 기분에 어머님과 아버님은 가슴이 무너졌다고 하셨다. 뿐만 아니라, 포럼에 참석한 FTM 트랜스젠더<sup>2</sup>의 동생은 ‘언니’라고 몇십 년을 부르고 살았는데 이제 오빠라고 불러야 하는 호칭의 문제, 나아가 친척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오츠지 카나코씨의 어머니 오츠지 타카코씨의 말을 잊을 수 없다. 딸이 26살에 커밍아웃했을 때 충격으로 일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으며, 커밍아웃 이후로 2년 동안 딸은 물론 주변 누구와도 그 화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왔다고 한다. 그리고 “딸을 인정하게 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동성애자들은 부모에게 커밍아웃하여 벽장 밖으로 나오지만 부모는 오히려 벽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했다.

그렇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커밍아웃을 하는 순간, 그 문제는 바

---

1) Male to(toward) Female의 약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2) Female to(toward) Male의 약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톤을 넘겨받듯 ‘벽장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똑같이 겪는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친구의 문제, 나아가 나의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동성애자나 성적소수자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란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들 내 주변에 성적소수자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그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 10월 중순, 멋진 게이들의 합창을 들을 수 있는 게이 코러스 G-Voice의 정기공연이 열렸다. 매체에서 흔히들 우울하고 침울하고 슬프게 그려지는 게이들의 모습은 어제의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들은 ‘GAY’, 말 그대로 세상을 즐겁고 유쾌하고 끼스럽게 노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는 매해 열리는 성적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있다. 퀴어문화축제는 약 열흘 동안 영화제, 퍼레이드, 파티로 진행되며 올해 11회를 맞이하였다.

올해 퀴어문화축제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외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한국 모기업이 퍼레이드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성적소수자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일. 그것에서부터 진정한 이해는 시작된다. 그리고 진정한 이해와 수용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거기에 더하기 성적소수자 인권단체에 후원하는 일!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외국에는 성적소수자를 지지하는 이성애자들의 모임이나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둔 가족들의 모임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들어 질 것이다. 성적소수자들과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하여 함께 걷는 일. 그렇게 우리는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 성적소수자들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와 퀴어 퍼레이드에서 손잡고 함께 걷는 날을 꿈꾸어 본다. 우리, 내년에는 함께 걷지 않으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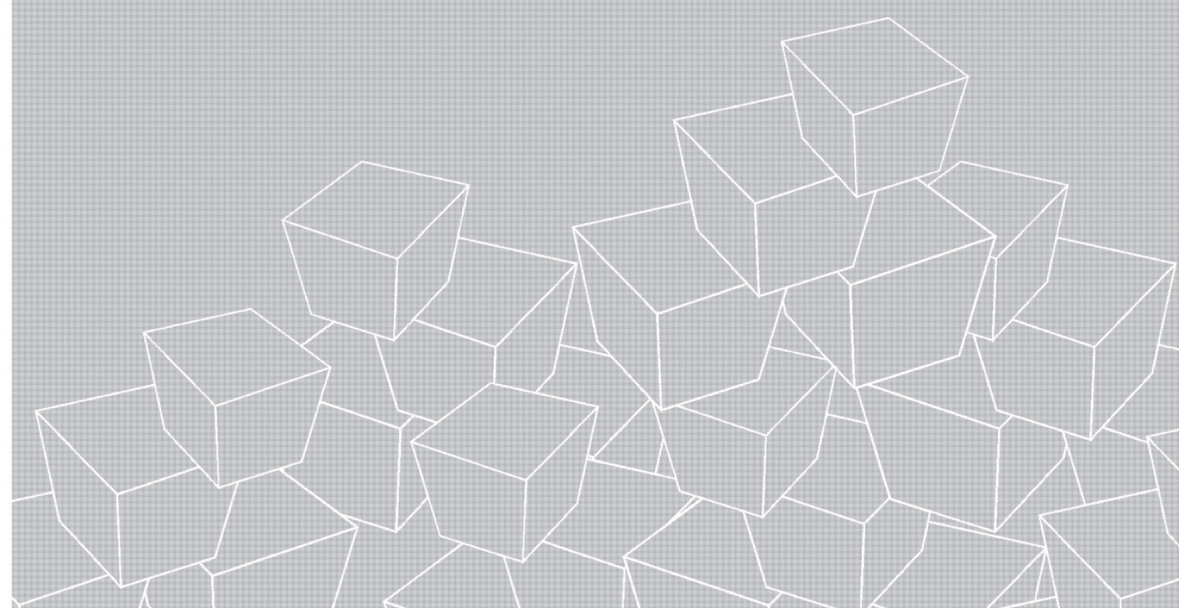
# 3

생존자 말하기  
성폭력을 말할 수 있을까?

성폭력과 사람들  
지리멸렬해, 그래도 가족.

사례연구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살핌 의무'  
연예인-기획사-스폰서의 위태로운 3중주

상담통계  
2010년 상반기 상담통계





# 성폭력을 말할 수 있을까?

지나

## 원고 청탁에서 시작된 고민

리무와 마도가 원고 부탁을 해왔다. 나의 경험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만큼 말하면 된다고 한다. 잠시 고민하다가 그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뭔가 내 속에서 불편한 맘이 일어났다. 나는 글을 쓰겠다고 해 놓고, 왜 불편할까? 그건 글쓰기가 온전히 내 몫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말할지…… 얼마만큼 말할지…… 솔직하게 고백할지, 아니면 조금 빼버리고 숨길지... 그건 어디까지나 내 몫이라. 그 선택 앞에서 나는 불편한 거 같다.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벌어진 상황이 아닌데, 그 결과를 나 혼자 책임져야 했던 성폭력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건 웬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한 글을 쓰고 지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여전히 고민스럽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 나의 이야기가 읽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까? 내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웬지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싶어졌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정리해본 적이 없는 경험, 한번도 정리해보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경



힘을 짧은 글이지만 정리해보고 싶어졌다.

### 성폭력을 말할 수 있을까?

내 기억 속 첫 번째 성폭력 사건은 7살이다. 가해자는 길거리 상인이었고, 사건은 동네 꼬마들과 함께 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했다. 그 사건은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기억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가해자는 일상적으로 동네 꼬마들을 성추행했을 것이다. 성추행을 당한 후 당황스러웠던 나는 낯설고 의아한 표정으로 가해자를 바라봤다. 가해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싱거운 표정과 함께 잠깐 재밌는 일을 했을 뿐인데 뭘 보냐는 표정을 동시에 지어보였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영업을 했다. 그 낯설음과 당황스러움에 나는 잠시 멍하게 있다가 다시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던 것 같다. 이게 도무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없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 같다. 소란스럽게 놀고 있는 동네 아이들 속에서 7살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뭔가 기분 나쁜 일이라고만 여겼던 이 사건은 성인이 되고나서야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 씩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때도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기억은 없으니 내가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 셈이다.

사람이 어떤 놀라운 상황 앞에서 순간 얼어버린다는 것,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알게 했던 성폭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직한 곳에서 일어났다. 가해자는 거래처 사람이었고 경험 많은 가해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순간 얼어버린 나는 잠시지만 내 몸을 통제할 수 없었고, 가해자가 상황을 종료한 후에야 내 자리로 돌

아울 수 있었다. 내 자리로 돌아와서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회사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회사로 와 준 고마운 친구 앞에서 나는 울었다. 그런 나에게 사장은 아무리 그래도 친구를 회사로 부르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가해자가 과거에도 빈번하게 성폭력을 저질렀음을 알고 있었다는 눈치를 보이면서 나에게 조심하라고 했다. 가해자에 일으킨 분노만큼이나 회사 사장에게도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다. 가해자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었으면서, 성폭력이 빈번했음에도 거래처 사람과 불편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나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사장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 성폭력 사건을 적어보니…….

짧게지만 성폭력 사건을 적고 나니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다. ‘나는 그때 왜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때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화내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때 참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굳이 나에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는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몰랐고, 어디서 배워보지도 못했으므로 친구에게 털어놓고, 사장에게 말하고, 우는 것이 나를 위로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다. 왜 가만히 있었냐고, 왜 울기만 했냐고 나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거슬러 다시 20살의 나로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대응했던 방법 이상으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 대신에 ‘그런 일을 겪은 후에도 이렇게 잘 살아있구나!’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살아있다니 정

말 애썼구나! 대단하다!’ 라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

### 성폭력을 말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말하고 나니, 이 글이 실리게 될 ‘생존자 말하기’라는 제목이 궁금해졌다. 말한다는 게 뭘까? 그건 아마도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아닐까! 목소리, 목숨과도 같은 자신의 호흡, 숨이 터져 나오는 소리 말이다. 성폭력을 말한다는 것, 정리해본다는 것은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나를 좀 더 위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얼버무리고 뭉뚱그려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직면하고 나와 직면해보는 시간을 내 목소리로 들여다보는 시간 말이다.

내 목소리를 꺼내본다는 것,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꺼내본다는 것……. 질문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해본다는 것이 생존자 말하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성폭력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가해자가 누구이든…… 어떤 사건이든…… 말할 수 있어야 생존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그러고 살았어?’ 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당신이 대단하다!’ 는 목소리로 말이다.

# 지리멸렬해, 그래도 가족.

달가루

나의 불쑥 찾아오는 감기와도 같은 이 불편한 감정들은 성장주기에 힘을 얻어 자주 빈번히 찾아오곤 했다. 나의 고백은 대학교 2학년 때, 지원한 학과의 학문은 언제배우냐며, 내가 왜 이런 주제(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글쓰기)로 글을 써야 하는지, 상담과목을 왜 수강신청해서 나의 좋지 않았던 과거를 직면하게 되었는지, 하는 질문에 짜증과 불편한 감정들을 여과 없이 부모님에게 전했던 것 같다.

나의 부모님에게는 이런 짜증이 성장기 드라마에서나 보던 끝나지 않는 사춘기의 불평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행동에 덜컥, 나는 폭발하게 되었다.

“과제가 많아?”

“아니, 됐다고…….”

“그럼 뭔데, 뭐가 불만이야? 학교가 멀어서?”

“아니, 괜찮다고. 나 지금 문서 작성하는데!”

“거 봐. 과제가 많은 거네. 근데 대학생이 그만한 거 가지고…… 별나다, 별나…….”



‘별나다. 특이하다. 엉뚱하다.’라는 단어에 발끈했고 나는 애꿎은 키보드를 내리치며 말했다.

“내가 ○○한테 성폭력 당한 걸 하나하나 적으려니까 그런다. 왜! 그래, 나 별난 경험 때문에 이렇게 지지리도 힘든 경험을 적어내려 가려니 힘들어서 그렇다고! 당신이 나를 지켜주거나 했어! 지켜주지도 못했으면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다가 부모님의 일그러진 표정과 하마같이 벌어지는 입을 나는 기억한다.

아빠는 수사관처럼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언제. 왜. 몇 번이나. 어떻게 만졌어?” 등 육두문자와 함께 뱉어지는 질문에 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는 나에게 처녀성을 물었다. 단 한 개의 질문, 그리고 울음…….

나는 이들에게 화가 났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상처 되는 말과 질문들을 할 수 있냐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나를 지지해 주지 못하는 그들.

질문에서 나온 그들의 결론은 나에게 처녀임을 지켰다는 칭찬과,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며, 이보다 더한 일을 겪는 이들도 잘만 살고 있다고, 가슴속에 묻어버리고 잘 살자는 고무성 멘트를 날리며, 판에는 위로라며…….

본인에게도 충격적인 사실을 잘 참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벌벌 떨리는 자신들의 가슴을 위로하곤 내 방에서 나를 또 홀로 나와두고 잠을 청했다.

처음부터 나는 그들이 미웠다. 그리고 고백 후엔 더 부담스러워졌다. 그들의 존재가……. 그렇게 매달리며 아프다고 했던 나에게 그들은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 내가 참아야 한다고 무언의 압력을 주었다. 나는 참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다 잊은 듯, 괜찮은 듯 뭐든 그들이 하는 일에 자신 있게 웃고 지낼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유 없이 반항했

고 짜증이 났다. 나의 가족, 나의 율타리, 나의 안식처. 그들에게 고백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은 환상은 사라졌고, 경험에 경험을 더해 나는 무거워졌으며, 나는 그들 눈에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역겨웠다. 그러나 이런 역겨움은 시간이 흘러 포기가 되었고 ‘살아보니 괜찮아 지더라.’라는, 무심하게 뱉은 부모의 말에 어느덧 착실히 따르는 내가 되어갔다.

그 후 4년이 흘러버린 초여름, 내가 제일로 예뻐하던 한 꼬마 친구의 바지 사건이 나를 또다시 미치게 만들었다. 켜켜이 쌓아뒀던 그 감정은 나를 미친년으로 만들었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미쳐가고 있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도와줄 사람을 찾았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을 봐도 만족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또 부모를 떠올리고 말았다. 기가 막히게도, 지질하게도 버리지 못하는 부모. 나는 참 지리멸렬했다. 그래서 “그래도 부모”라는 것을 잡기로 했다.

두 번째 고백은 무척이나 덤덤했다. 미친년처럼 올라오는 감정들은 상담선생님께 풀어버리고 부모에게는 담백한 어조로 녹취록을 풀듯 천천히 말했다.

“난 내가 잘못 한 게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 걸 아는데.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 바지 내리는 걸 보면 힘들어. 저번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직원들이 있는 그곳에서 울어버렸어. 나는 아직도 인가봐.”

그리곤 나의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도움이 필요한 병원을 이야기하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차분히, 그러나 떨리는 어조로 이야기했다. 이야기 끝에 굵은 목소리의 울음이 들려왔고 “미안하다.”라는 짧고, 떨리고, 화나고, 울컥하는 단어를 들었다. 당신께서도 많이 힘들었다는 그 뒤에 단어가 흐릿해 질 정도로 그 단어가 가진 힘에 취했고 그간 모든 경험

들을 잃어버릴 정도로 많이, 우리라는 세 사람은 함께 울었다.

그 뒤 엄마와 아빠와 나는 상담을 받았다. 함께 받을 때도, 따로 받을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울다가 심각해졌다가 웃기도 했다.

상담시간에 손을 잡고 우리는 우리에게 당신들과 나의 잘못이 아님을 말하였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아빠의 잘못이 아니야.”

“그래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이 경험이 용기를 주었을까? 아버지는 형제애의 단절까지 생각하시며 용기를 내 가해자(사촌오빠)를 만났고 나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에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앞으로의 태도들을 전했다.

지금은? 그래 지금. 지금의 나는 그냥 나이다. 지금의 나의 가족도 그냥 가족이다.

가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도 하면서 서로 짜증부리고 화도 내고 예전과 같은 딸과 부모, 그러나 좀 다른 것은 종종 듣는 성폭력과 관련된 뉴스를 듣게 되거나 다큐멘터리를 볼 때 한번쯤 가족이 나를 쳐다본다는 것, 그 외의 일상은 평범하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울고 같이 웃었다는 새로운 경험이 내 안에 있고 그게 우리 가족이고, 힘든 세월을 견디게 한 것 같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경험의 상처들로 힘든 당신들에게 내 아버지가 전했던 말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미안합니다. 알아주지 못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또 미안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살핌 의무’

이어진 | 본 상담소 상담인권국장

가족이 뭘까? 가족은 개개인에게 매우 다르고도 특별한 의미일 것이다. 가족은 각박한 세상의 안정된 항구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일상의 폭력과 억압이 자행되는 장소로 폭로되기도 한다. 이 폭로의 한 부분에 ‘친족성폭력’이 있다. 친족성폭력은 최근 언론의 빈번한 보도 덕에 가족 내에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오빠, 언니, 누나로부터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성폭력 범죄의 고소율이 10% 미만이고, 친족성폭력 피해가 지속적이고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임을 생각할 때 실제 피해건수는 훨씬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생각보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인 가족을 고소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친족성폭력피해자에게 예기치 못한, 한번쯤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있다.

## 늙고 병든 가해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

얼마 전 상담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다급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



의 내담자 A씨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본인의 최초 상담 번호를 기억해내며 “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사정은 이랬다. 딸이 친부(親父)로부터 성폭력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가해자인 남편을 고소하고 싶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이후 다행히 주소지 변경의 온갖 노력을 통해 가해자를 피해 살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동사무소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다. 가해자가 늙고 병들어 경제력이 없으니 딸이 가해자의 ‘부양의무’를 지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절규하며 동사무소 담당자에 어렵게 사정설명을 했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친족성폭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양의무를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닌가? 만약 사실이라면 당연히 고소했을 일이다. 엄마도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부양의무를 지지 않으려면 법적 자료를 제출하라. 설-사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10년이 지난 일이다. 이제는 딸이 불쌍한 아버지를 보살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가족법 영역의 하나인 친족법(민법 제4편)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친족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부양의무’라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의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관계에서 가지는 부양의 의무에는 살아있을 때 부양을 하는 것과 더불어, 죽음을 맞았을 때 장사를 지낼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 임종한 가해자의 장사를 치를 의무

내담자 B씨는 어릴때부터 가해자인 아버지와 단 둘이 살면서 성폭력피해를 견디어냈다. 성인이 되고, 돈을 벌게 될 때까지. 딱 그만큼을 잘 견딘 B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다. 그리고 그때의 결심처럼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가해자가 생명이 위독하니 마지막 임종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B씨는 고민했다. 무척, 여러 번,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했다. 하지만 가해자를 보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병원에 전했다. 병원의 반응은 ‘그래도 너무한다.’ 라는 반응이었다. 세상 모두에게 이해를 바랄 수는 없기에 넘어갔다. 그런데 그 얼마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사를 치르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생각지 못한 문제였다. 가해자를 고소하고 벌줄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가해자가 죽었으면 싶었던 적도 많았는데, 실제 가해자가 죽고, 그 시신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B씨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B씨가 가해자의 장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평생 주소지를 거짓으로 등록하고 옮겨 다니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 B씨는 장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친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성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 가해자인 아버지 혹은 오빠를 부양하고, 혹은 장사까지 지내야 하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고소를 한 경우에 법적인 판결문이 있으니 간단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피해자가 승소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면 피해가 입증되기에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꼭 진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어서 재판에서 피해자가 패소했을 경우 부양과 장사의 의무를 그대로 가져가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에 대한 소송을 할 경우 친권포기 혹은 친권변경 소송을 꼭 같이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성폭력 상담사실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평생 가해자인 아버지를 피해 도망 다녔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母)인 A씨는 10년 전 상담기록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특별심의회위원회를 열어 부양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방법 또한 법적·제도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딱한 피해자의 사정을 들어 특별히 심의하여 나온 결과로 상담소와 같은 주변 자원을 활용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닥칠 경우 막막한 상황이다.

## 행정기관의 현실적 조력 절실

최근 A씨와 B씨가 겪은 일들을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더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 사법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살핌 의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가족인 가해자를 고소하기 어려운 친족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은 데서 오는 피해를 감수하지 않도록 보완할 사회적인 제도가 절실하다.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부양의무자 선정시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양의 의무와 장사의 의무 등 보살핌 노동을 강제 받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끝으로 A씨의 사건해결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와 보건복지부, B씨의 사건해결을 위해 국립의료원, 구청의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은 “이런(친족성폭력) 사유는 처음”이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외부인에게 성폭력 사실을 꺼내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친족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볼 때 행정기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행정 기관에 피해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음을 이야기했고, 실제로도 해결방안의 모색 없이 거절을 당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소리 없이 거짓말쟁이로 몰리며,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피해자를 고려하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초석이 하루빨리 쌓여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연예인 · 기획사 · 스폰서의 위태로운 3중주

보장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내가 그 여성연예인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작년 일이다. 고(故) 장자연 씨가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너무나 간략한, 그러나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유언을 남긴 이후에, 장자연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굿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상담소의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뭔가 최후의 선택을 한 것처럼 비장하고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워보였으나, 또박또박 차분하게 말하는 어조 속에는 낯모를 쾌활함이 숨겨져 있었다. 인지도와 유명세를 떠나서라도 ‘연예인’이라는 신분은 사건 지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나는 처음 가보는 진흙탕 길을 그녀와 함께 진창 굴러야 했다.

## 연예인 · 기획사 · 스폰서의 위태로운 3중주

연예기획사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게 되는 SM, JYP, YG 등 유명기획사들은 사실상 연예기획사의 1%도 되지 않으며, 한국에는 수많은 중소기획사들이 존재한다. 이 중소기획사들은 대부분 열악한 재정상황 속

에서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며 운영비를 투자받기 위해서 기업가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데, 이때 주로 동원되는 것은 여성연예인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폭력이나 협박 같은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하기도 하면서 여성연예인을 스폰서와 연계하게 된다.

이번 사건도 기획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기업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피해가 있었던 사건이었다. 기획사 대표가 주도하여 그녀를 스폰서인 사업가에게 소개시키고 만남을 주선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런 관계를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했을 때도 “조금만 더 참자. 성공하면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말로 회유하였다. 누구도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연예계에서, 연예인으로서 멋지게 성공하게 싶은 꿈을 담보로 그녀의 미래를 하루하루 갉아먹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한때나마 같이 고생했던 사람으로서 좋은 감정을 놓지 않았던 그녀를 보면서, 나는 그 사람좋음과 순진함에 좀 착잡한 심정이 되기도 했다.

많은 여성연예인들이 기획사로부터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연예인이 스폰서의 제의를 받아들여 남들이 탐내는 배역을 맡거나 손쉽게 스타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이 제의를 거절한 데 대한 상대적 결핍감과 후회는 더 커지고, 다음번, 다다음번에는 그 제의를 수락하게 되는 것이다.

### 합의금, 꽃뱀, 그 상투성을 뛰어넘어

스폰서인 사업가는 지속적으로 여성연예인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지방흡



입수술과 다이어트를 강요하였다. 하루에 토마토 몇 개만을 먹으며 무리하게 다이어트한 결과 심신이 망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사업가는 여성 연예인을 호텔로 불러내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마침내 그녀가 이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자 했을 때 할 수 있었던 요구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요구라고는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다. 그녀는 당시에 너무 분해서 가능하면 가해자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고 싶었고, 가해자를 알거지로 만 들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상담소를 찾아오기 전에 합의금을 요구했던 일은 사건 지원과정에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다. 여성운동단체, 변호사, 연예인단체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청할 때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절을 당하거나 유보적인 대답을 들어야 했다.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는 정황 자체가 피해자의 동기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피해자가 가진 ‘정당한 명분’을 훼손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으로 일하는 단체들은 피해자의 ‘명분’을 위해서 싸울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보상’을 위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꺾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자 현실적인 피해보상의 수단이라면 어떻게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합의하고 싶은 의사가 없을 때에도, 가해자는 합의금 몇 푼을 내밀며 성폭력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다. 이럴 때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사건을 빨리 마무리짓고 싶은 마음에 받아든 합의금 몇 푼이 피해자를 오히려 궁지에 몰아세우기도 하며, 가해

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에 요구했던 합의금 때문에 피해자의 동기가 불순하다고 오해받기도 한다. 문제는 합의금을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간에 ‘피해자의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된 행위’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 연예인과 언론, 멀고도 가까운

여성연예인 사건을 지원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 중의 하나는 언론을 어떻게 적절히 이용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언론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사건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이 무작위로 유포되거나 난데없이 악성루머에 시달리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예인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어느 정도까지 언론 이슈화를 할 수 있을지 어떠한 방식으로 언론 이슈화를 할지는 매우 고민되는 문제였다.

연예인들은 비단 톱스타가 아니라고 해도 누구나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매우 신경쓰고 있으며 일거수일투족이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행여나 기자가 따라붙지 않을까 이상한 기사나 나거나 악플이 달리지 않을까 늘 걱정하며, 은행에 가는 일, 관공서를 방문하는 일 등 일반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들도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

그래서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 각종 서류를 준비하거나 법원을 방문하는 일 등도 얼굴이 알려질까봐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며, 가족이나 매니저 같은 조력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지원과정도 해당 연예인뿐만 아니라 가족, 매니저 등 다양한 주변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을 상담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여성연예인보다 주변인들을 더 자주 상담하게 되었

는데, 전달과정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고, 피해자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되도록 그녀를 자주 만나고 최대한 그녀의 의사를 물어보고 함께 가려고 노력하였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그 끝은 참 시원섭섭한 경우가 많다. 남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것이 그녀들에게는 힘겨운 시작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건 지원은 끝났지만 그녀에게는 다시 연예인으로서 재기하는 인생의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을 낫설어하며 자신의 결정이 어땠는지 반문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특별히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건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써나가는 과제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하루빨리 그녀가 다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브라운관에서 보게 되기를 빌며, 마음 속으로 다시 한 번 ‘화이팅’을 외쳐본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 2010년 상반기 상담통계 현황

리 무 |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1991년 4월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이래 2010년 6월 30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43,542건(65,780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35,797건(1,678회)이다. 2010년 상반기를 살펴보면 총 713건(1,139회)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이중 631건(1047회)이 성폭력상담이었으며, 상담 방법별로는 전화상담 908회(79.7%), 온라인상담 29회(2.5%), 면접상담 172회(15.1%), 방문면접(동행) 27회(2.4%), 기타 3회(0.3%)순이다. 이중 2차 이상 지속상담은 110건(17.4%), 5차 이상 지속상담이 23건(3.6%)으로 지속적인 사건지원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현황

2010년 상반기 631건의 성폭력상담 중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611건(96.8%), 남성이 17건(2.7%)이며, 연령별로는 성인 피해자 425건(67.4%), 청소년 124건(19.7%), 어린이 53건(8.4%), 유아 28건(4.4%), 미상 1건(0.1%)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인 여성의 피해가 전체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피해자 비율도 적지 않은 데 반해 최근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은 어린이·유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쉬움을 가져온다.

〈표1〉 2010년 상반기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415 (65.8)	119 (18.9)	50 (7.9)	26 (4.1)	1 (0.1)	611 (96.8)
남	10 (1.6)	3 (0.5)	2 (0.3)	2 (0.3)	0 (0.0)	17 (2.7)
미상	.	2 (0.3)	1 (0.1)	.	.	3 (0.5)
총계	425 (67.4)	124 (19.7)	53 (8.4)	28 (4.4)	1 (0.1)	631 (100.0)

〈단위: 건(%)〉

###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2010년 상반기 가해자 상담 통계를 보면 성인 남성 522건(82.7%)으로 성폭력 피해가 대부분 성인남성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2010년 상반기 성별 연령별 가해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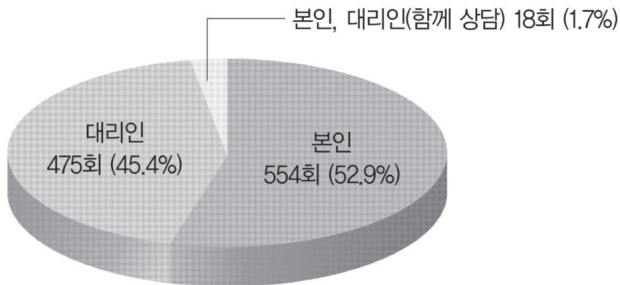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9 (1.5)	.	1 (0.1)	1 (0.1)	0 (0.0)	11 (1.7)
남	522 (82.7)	52 (8.2)	19 (3.1)	2 (0.3)	21 (3.3)	616 (97.7)
미상	.	.	.	.	4 (0.6)	4 (0.6)
총계	531 (84.2)	52 (8.2)	20 (3.2)	3 (0.5)	25 (3.9)	631 (100.0)

〈단위: 건(%)〉



###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상담 의뢰인의 경우 최근 들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남자친구, 교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대신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성폭력범죄가 잇따라 보도됨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성폭력 피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보인다.



### 피해 유형별 · 연령별 상담현황

피해유형별 · 연령별 상담현황은 성추행 277건(43.9%), 강간(준강간 포함) 219건(34.7%), 성희롱 52건(8.2%), 강간미수 36건(5.7%) 스토킹 17건(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볼 때 성희롱의 경우에는 성인 피해가 전체 52건 중 46건으로 피해가 성인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어린이와 유아의 피해에서 성추행이 다른 피해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2010년 상반기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유형	강간	강간 미수	성추행	성희롱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이용 촬영	스토킹	음화 등의 제조 유통	기타	미상	총계
계	219 (34.7)	36 (5.7)	277 (43.9)	52 (8.2)	15 (2.4)	10 (1.6)	17 (2.7)			5 (0.8)	631 (100.0)
성인 (20세 이상)	145 (23.0)	27 (4.3)	171 (27.1)	46 (7.3)	10 (1.6)	9 (1.4)	15 (2.4)	.	.	2 (0.3)	425 (67.4)
청소년 (19세~14세)	56 (8.9)	6 (1.0)	48 (7.6)	5 (0.8)	4 (0.6)	1 (0.2)	2 (0.3)	.	.	2 (0.3)	124 (19.7)
어린이 (13세~8세)	15 (2.4)	1 (0.2)	34 (5.4)	1 (0.2)	1 (0.2)	.	.	.	.	1 (0.1)	53 (8.4)
유아 (7세 이하)	3 (0.5)	1 (0.2)	24 (3.8)	.	.	.	.	.	.	.	28 (4.4)
미상	.	1 (0.2)	.	.	.	.	.	.	.	.	1 (0.1)

〈단위: 건(%)〉

## 낙태 관련 상담현황

2010년 상반기 통계의 가장 큰 특징은 낙태와 관련한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2009년 1, 2월 상담 282건 중 6건이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임신하고 임신중절을 받은 경우였다. 반면 2010년 1, 2월에는 342건 중 총 33건의 낙태 관련 상담이 있었

는데, 이 중 19건이 모두 임신중절을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었다. 이같은 낙태 상담은 2010년 상 반기 내내 꾸준히 이어졌으며 정부의 불법 낙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 가 특히 심했던 2월, 3월에는 하루에 한 건 이상의 낙태 관련 상담이 들어

〈표4〉 2010년 상반기 낙태 관련 상담현황

유형 월	총 상담건수	낙태 관련 상담건수(%)	
		강간에 의한 임신	기타
1월	162	23 (6.2%) 10	.
2월	180	23 (12.8%) 13	10
3월	229	23 (12.7%) 21	8
4월	201	23 (5.0%) 8	2
5월	193	23 (6.2%) 11	1
6월	215	23 (1.4%) 2	1

왔다. 이처럼 낙태에 관한 정부의 강경 정책이 실제로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이 537건(85.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모르는 사람 72건(11.4%), 미상 22건(3.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5>를 보면 피해자 연령별 가해자와의 관계 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성인의 경우 직장 내 관계가 153건(36.2%)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은 학교 내 관계가 27건(38.5%)을 차지하여 청소년이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인지교육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어린이의 경우 친족 내 성폭력이 22건(40.0%), 친·인척을 포함하면 35건(61.8%)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5> 2010년 상반기 피해자/가해자 관계

유형	아는 사람 537(85.1)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인척 86(13.6)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원/ 학원	주변 인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인척														
계	55 (8.7)	31 (4.9)	156 (24.7)	39 (6.2)	23 (3.6)	29 (4.6)	26 (4.1)	73 (11.6)	21 (3.3)	33 (5.3)	11 (1.7)	40 (6.4)	72 (11.4)	22 (3.5)	631 (100.0)	
성인 (20세 이상)	11 (2.6)	7 (1.7)	153 (36.3)	31 (7.3)	16 (3.8)	12 (2.8)	21 (5.0)	35 (8.3)	3 (0.7)	21 (5.0)	9.0 (2.1)	28 (6.6)	58 (13.7)	17 (4.0)	422 (100.0)	
청소년 (19세~14세)	16 (13.1)	7 (5.7)	4 (3.3)	8 (6.6)	6 (4.9)	8 (6.6)	4 (3.3)	27 (22.1)	10 (8.2)	7 (5.7)	2.0 (1.6)	8 (6.6)	11 (9.0)	4 (3.3)	122 (100.0)	
어린이 (13세~8세)	22 (40.0)	13 (23.6)	.	.	1 (1.8)	5 (9.1)	1 (1.8)	10 (18.2)	1 (1.8)	1 (1.8)	.	.	1 (1.8)	.	55 (100.0)	
유아 (7세 이하)	6 (22.2)	4 (14.8)	.	.	.	4 (14.8)	.	1 (3.7)	7 (25.9)	2 (7.4)	.	2 (7.4)	1 (3.7)	.	27 (100.0)	
미상	.	.	.	.	.	.	.	.	.	1 (20.0)	.	2 (40.0)	1 (20.0)	1 (20.0)	5 (100.0)	

<단위: 건(%)>



# 4

여성주의로 문화읽기

화살이 흥심을 뚫기까지 : 그녀들의 단단한 몸에 붙이는 글

날말퍼즐

아낌없이주는나무



# 화살이 홍심을 뚫기까지

그녀들의 단단한 몸에 붙이는 글

손희정 | 중앙대학교 강사 / 前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왜입니까?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입니까?”

어려서 당쟁에 아버지를 잃고, 생활비와 병약한 남동생의 약값을 대기 위해 남장을 하고 필사 알바를 시작한 김윤희가 우여곡절 끝에 금녀의 공간인 성균관에 입학한 뒤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스승 정약용이 그녀가 여자임을 알게된 것이다. 그녀를 성균관에서 내치는 것은 물론, 여의치 않다면 ‘죽음’으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스승에게 이 명민한 학생은 울음으로 되묻는다. 자신의 뛰어난 학업능력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글솜씨로도 ‘여자와 남자가 다르지 않음’을, 그리하여 ‘여자도 백성임’을 혹은 ‘여자도 인간임’을 증명할 수 없었는지를. 그리고 만약 그러하다면 활을 들어 ‘그 유별하지 않음’을 밝혀보이겠노라고 당당히 제안한다. 그 순간부터 ‘활을 내는 어깨는 부실하고 시위를 당기는 팔의 힘은 미약한데다 호흡은 불안정한’ 유생 ‘김윤희/윤식’의, 온 몸의 근육을 깨우고 손바닥을 훑어내는 몸의 단련이 시작된다. 한번을 하기 어려웠던 턱걸이를 해내는 횟수가 늘어나고, 산을 뛰어오르는 다리에 알이 오르며, 처졌던 어깨가 올라갈 수록, 그녀의 화살도 조금씩 과녁 가까이로 날



아간다. 그리고 모든 성균관 유생들이 활쏘기를 겨루던 대사례 날, 결국 그녀의 화살은 시원하게 흥심을 뚫는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이야기다. 꽃미남들에 둘러싸인 어설픈 남장여자를 구경하는 일이 한 주의 빼먹을 수 없는 즐거움이 된 것은 이 에피소드부터였다. 화면 속 김윤희는 여전히 3일동안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은 여리여리한 모습이었지만, 내 머리 속의 그는 튼실한 두 다리로 단단한 몸통을 바치고 서서 근육 잡힌 두 어깨로 활을 내는, 예를 들자면, 여민지 선수나 장미란 선수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다. 21세기, 여성의 유순한 몸은 ‘남녀의 유별함’이 각인되는 곳이자 ‘강요된 아름다움’을 경유하여 자본이 횡행하는 곳이며, 국가가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유용하는 공간이다. 김윤희의 ‘괴이한 유별’을 향한 진짜 싸움은 이런 유순한 몸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자신의 것으로 버려내면서 시작되는 것인 셈이다. 그러니 그 보는 재미가 어찌 남다르지 않겠는가.

<성균관 스캔들>의 김윤희처럼, 대상이 누구 혹은 무엇이건 간에 ‘싸움’을 위해 자신의 몸을 버려야만 하는 여자들은 종종 스크린에 등장한다. 고전적인 예로 ‘여전사’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에이리언> 시리즈의 리플리(시고니 위버)는 그 시리즈가 더 해 갈 수록 과학자에서 전사를 지나 초인으로 거듭 진화했다. 우주의 포식자인 에일리언이 변종함에 따라 그녀 역시 더욱 강한 전사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원조’ 격이라고 해도 괴물과의 사투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강인한 여성이라는 영화적 관습은 <에이리언> 1탄이 등장하기 전인 70-80년대 공포영화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었고, 이런 싸움꾼들은 영화 역사 상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하고 또 사라졌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의 싸움은 진보적인 여성관이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교도적이거나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옹호하기 위해서 스크린 위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그들의 싸움에서 매혹적인 것은 그 싸움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그 싸움을 위해 자신의 유순한 몸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어떤 입장에서 그 싸움을 시작했던, 흔들림 없이 버티고 선 두 다리와 붙끈 쥔 주먹 사이로 분출되는 에너지는 유약한 신체로 재현되던 여성상을 전복하고 새로운 종류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던 것이다.

제니퍼 로페즈의 <이너프>(2002)는 영화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범작이지만, 가부장적 폭력에 맞서는 몸의 단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꽤 재미있다. 웨이트리스 슬림(제니퍼 로페즈 분)은 식당에서 매력적인 사업가 미치를 만난다. 잘 생긴데다 돈도 많고 매너도 좋은 미치와 사랑에 빠진 슬림은 곧 그와 결혼한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조금씩 미치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슬림의 결혼 생활은 공포스러운 가정폭력으로 그늘지기 시작한다. 견디다 못한 슬림은 집을 나와 끝나지 않는 도망을 시작한다. 우리가 다양한 가정폭력 사례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폭력 남편은 아내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그녀의 목을 죄어 온다. 결국 슬림은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다. ‘크라브마가’라는 격투기 기술을 배우며 육체적 단련을 시작하는 것이다. 말랑한 피해자의 몸을 벗어나 단단한 근육질의 몸으로 바뀌어 가면서, 그녀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남자에게 선사할 ‘몸의 교훈’을 준비한다. 그리고 ‘싸움의 기술’이 그녀의 몸에 완벽히 새겨졌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다.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중의 계급적 열세에 놓여있던 그녀는 자신의 몸을 싸움꾼의 몸으로 단련하면서 도망자의 위치를 벗어나 자신을 억압하는 자와 마주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니퍼 로페즈가 연기한 주인공의 이름이 ‘슬림’이라는 것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미디어를 통해 여성에게 강요되는 슬림한 몸은 여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억압이 시작되는 곳이자 끝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단련된 몸의 단단함이 위치한 그곳은, 그들이 문화의 ‘유별함의 억압’과 대면

하는 바로 그곳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련된 몸의 전시에도 양가적인 가치관이 경합을 벌인다. 싸움을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여성들의 모든 몸이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님은 그 때문이다. 어떤 몸은 상업화의 최첨단에서 더욱 스펙타클한 육체의 전시를 위해 싸움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미녀삼총사>가 그런 예. 이 작품에서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는 카메론 디아즈, 드루 베리무어, 루시 윌루는 ‘찰리’라는 이름의 갑부가 운영하는 사립첩보회사에 고용된 스파이들로, ‘찰리의 천사들’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찰리의 천사들’은 말 그대로 화면 뒤에 숨어 미녀들을 움직이는 ‘찰리’를 위한 천사들이다. 백치미와 박력의 만남은 보는 재미를 주는 반면, 감동을 전하지는 못한다. (물론 성적으로 대상화된 여성의 몸에 길들여진 많은 관객들에게 늘씬하고 아름다운 몸이 주는 감동은 톡톡히 선사했을 테지만.) 특히 수억짜리 전신성형으로 화제를 모았던 데미 무어는 <미녀삼총사2: 맥시멈 스피드>에서 왕년엔 ‘찰리의 천사’였지만 악당으로 되돌아 온 ‘타락 천사’ 역할을 맡아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바닷가에서 놀라운 배근육을 뽐내며 등장한 데미 무어의 몸은 세 명의 미녀들과 엄청난 파워를 뽐내는 대결씬을 선사하지만, 되려 몸의 대상화/상품화에 더욱 활발히 조응하고 있을 뿐이다. 그녀가 그 스크린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늙고 처져버린 자기 자신의 자연스러운 몸’이었던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툼레이더>(2001)에서 <미스터&미세스 스미스>(2005), <원티드>(2008), 그리고 <솔트>(2010)로 이어지는 전사 안젤리나 졸리의 몸은 전복과 순응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드걸이 아니라 007이 되고 싶다”며 본드걸 제의를 한번도 수락하지 않았던 ‘여신다운 풍모’의 그녀가 보여주는 액션은 언제나 화려하고 또 강렬하다. 그녀가 보여주는 스크린 밖에서의 정치적 행보와 함께 졸리의 몸은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온 전통적 영화 내러티브를 확실히 거부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싸움은 ‘성대결’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개봉한 <솔트>의 (미국남께서 절대악으로부터 세상을 구하시느) 미국식 영웅주의는 단순히 강인한 남성의 몸에서 강인한 여성의 몸으로 그 용기만 바꾸어 댔을 뿐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줄리의 단단한 몸을 찬양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들의 단단한 몸을 찬양하되, 그녀들이 수행하고 있는 싸움의 내용을 정치하게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고전적인 여성재현의 전복은 중요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더 큰 이데올로기가 도사리고 있다.

스포츠,라고 불리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글은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영감을 준 ‘사건’이 그 스포츠의 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17세 이하 여자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우승과 여민지 선수에 대한 들끓는 ‘삼촌심’(여기서 ‘삼촌’은 성별을 뛰어넘는 성인 팬텀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이 바로 그것.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빛낸 여자 축구’에 열광하고, 16강에 겨우 올라간 남자축구하고 여자축구를 비교하면서 미묘한 ‘성대결’을 부추기고 있을 때에도, 나에게 감동을 준 것은 다른 어떤 맥락을 떠난 그들의 몸 그 자체였다. 하루를 포도 몇 알로 견뎌낸다고 인구에 회자되는 걸그룹의 흐느적거리는 희멀건 몸 앞에서, 그들의 검게 탄 피부, 단단한 팔다리, 그리고 혈떡이는 심장은 카타르시스적 희열을 발산했다. 다이어트와 성형으로 얼룩지고, 성적 대상화와 상품화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여성의 몸에게, 그들은 “일어나서 뛰어라”라고 말한다. 언론에서 “샤이닝에 열광하는 평범한 소녀들”이라고 보도를 할 때에도, 그들은 평범한 소녀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자신의 몸을 끝없이 버려온 사람들이며 자신만의 과녁 앞에 두 다리로 버티고 서서 흥심을 뚫은 사람들인 것이다.



### 가로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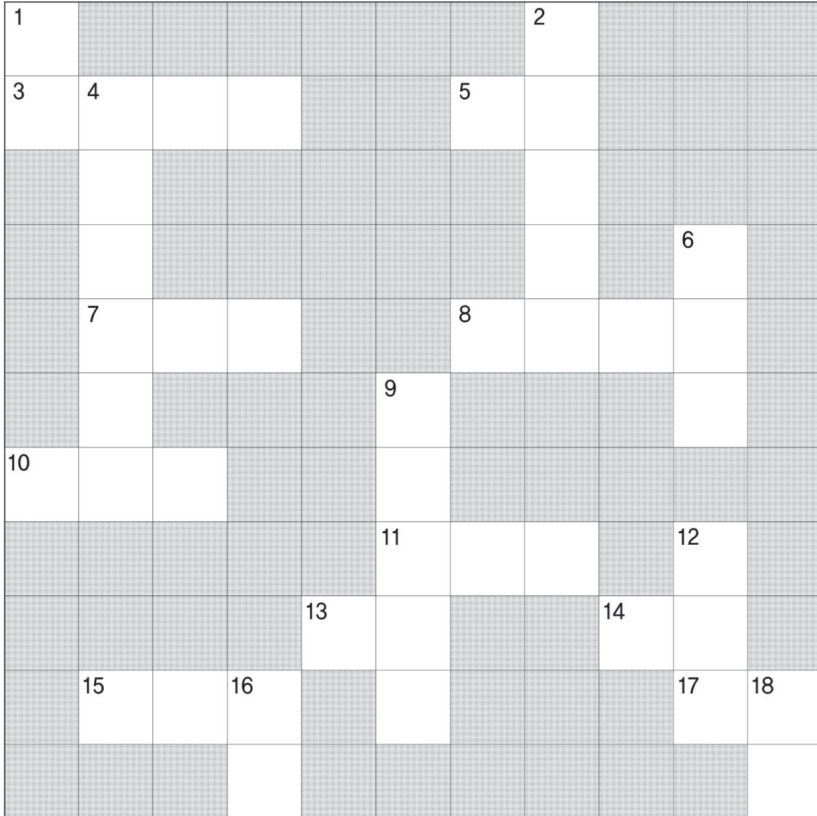
3. 본 잡지명.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운동.
5. 할리우드 여성 배우. 영화 <솔트(SALT)>를 통해 강렬한 액션을 선보이며 여성 몸의 재현을 전복했다. 안젤리나 ○○.
7. 본래의 뜻은 후원자, 혹은 광고주. 연예기획사를 후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흔히 일컫는 말이기도 하며, 이러한 관계로 인해 소속 연예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8.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 잘못을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대의'에 의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10.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이른 봄에 뿌리에서 깃 모양으로 깊이 갈라진 잎이 난다. 씨는 흰 깃털이 있어 바람에 날려 멀리 퍼진다. 노래 <○○○ 홀씨 되어>.
11. 성폭력 발생 시 '이것'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가해자의 변명을 자주 듣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많은 우려를 안은 채 ○○○약물치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13. 이번 호 <프리즘>의 주제.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초등○○. 중○○.
14.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도메인의 뜻. 주로 여자끼리의 동기(同氣), 언니와 여동생 사이를 뜻한다. ○○애.
15. 정치를 말아서 하는 사람. 2010년,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이 집단의 인권의식이 다시금 문제가 되었다.
17. 무엇을 배우는 길에 처음 들어섬. 한국어 ○○서. 정치계 ○○.

### 세로 열쇠

1. 퀴어(Queer)의 다른 표현. 일반(一般)과 다르다는 뜻.
2. 국회 및 정당에서 국회의원 · 당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국회의 경우 ○○특별○○○라 하며, 1991년 개설 이후 의원 징계안은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없다.
4. 2010년 화제의 드라마 중 하나. 조선시대, 여성이 남성의 신분으로 가장하여 최고교육 기관에 들어가 벌어지게 되는 내용을 다루었다.
6. 위원 가운데 우두머리.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이 보직에 있는 자의 자질에 대해 시민 사회단체들이 문제제기하여 지속적인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9.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을 키우는 교육을 뜻한다. 인권 · 평화 등을 주제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젠더 ○○○ ○○.
12.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들을 뽑는 수상식의 줄임말. 언니네 트윅크 주최로 200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여러 국회의원들을 비롯, 2009년에는 현 대통령도 뽑힌 바 있다.
16.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뜻한다. 2010년, 드라마 <○○은 아름다워>가 퀴어 커플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화제를 모았다.
18.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한 물질적 ·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성○○. 또래○○. MBC(○○방송).



-----  
 <반성폭력> 1호를 읽었다면 맞출 수 있는 낱말퍼즐.  
 힌트는 물론 본문에 있습니다!  
 -----



정답을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하여  
 두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ksvrc@sisters.o.kr

주 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 아낌없이 주는 나무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민녀 김보미 김수민 김수연 김연우(김태진) 김옥주 김윤희 김은혜 김인철 김정수 김지혜 김효진 나인선 무라야마 잇페이 박성희 박은미 박은정 박현달 방기연 백미록 백세희 성나리 설동민 손희정 신나영 신성용 신현 신현정 여한숙 오미영 오진아 원경주 유경란 유배숙 윤여창 이명철 이경숙 이보라 이소희 이승숙 이은미 이은현 이주연 이정민 이정은 이훈주 이희수 임지숙 장서영 장유진 장운성 전영미 정혜신 조경애 조윤정 조형원 최성화 최은영 하정원 한승희 한승희 허복옥 허정익 홍상의 홍일선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후원해주신 후원회원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람 강근정 강기순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명숙 강명지 강민녀 강보길 강선미 강수준 강영 강영미 강영순 강영화 강유리 강이현주 강인화 강정희 강지유 강지이 강혜숙 강희진 계경문 고금미 고미라 고보경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고효주 고희정 곽옥미 곽윤이 구민지 구분준 국제여성회SIWA 권경희 권구홍 권기욱 권김현영 권민혁 권소영 권오란 권인숙 권주희 권해수 금철영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애 김경태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광만 김광진 김나연 김난형 김다미 김대숙 김도연 김동명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돌순 김매정 김명숙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숙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현 김민구 김민미 김민영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병필 김보미 김보연 김보화 김봉섭 김삼미 김상호 김상의 김셋별 김석제 김선경 김선미 김선민 김선에 김선화 김선희 김성동 김성문 김성자 김성현 김세준 김세훈 김소명 김소연 김수 김수민 김수민 김수연 김수진 김수향 김숙영 김순자 김승구 김아리 김애라 김애란 김양지 김언정 김엘림 김연정 김연우(김태진) 김연정 김연지 김연진 김연희 김영림 김영서 김영선 김영세 김영신 김영애 김영환 김예람 김옥은 김옥주 김용란 김용백 김원식 김원정 김원희 김유진 김유진 김윤정 김윤희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아 김은정 김은하 김은혜 김은희 김웅진 김의창 김이미나 김인에 김인혜 김일륜 김자경 김재동 김재원 김재윤 김정민 김정수 김정완 김중수, 권상범 김중희 김주영 김주희 김준호 김지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는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진숙 김진희 김준경 김탁환 김태섭 김태환 김택진 김하나 김하나 김하연, 나성일 김하정 김학실 김한상 김한선혜 김해경 김현 김현경 김현란 김현성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혜경 김혜정 김혜란 김혜련 김혜숙 김혜숙 김혜영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혜현 김효정 김효진 김희경 김희정(김진호) 나길희 나루 나미나 나윤희 나인선 남길석 남덕우 남재민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노경란 노귀연 노길옥 노미선 노복미 노상숙 노선이 노수희 노영태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지성 도병옥 도상금 도정애 라길자 류란 류중현 류진봉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길환 문김채연 문미라 문미정 문수연 문영민 문준희 문지영 문현정 문효진 박경미(민초) 박경훈 박다위 박덕임 박명숙 박미경 박미라 박미선 박미숙 박미영 박미향 박미현 박민주 박병현 박보영 박상규 박상희 박서원 박선숙 박선희 박성주 박성희 박세정 박소라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수연 박수현 박순복 박슬아 박승일 박아름 박영 박영래 박영주 박윤미 박윤주 박은미 박은정 박은진 박은혜 이준기 박재형 박정란 박정순 박정옥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중선 박주연 박준면 박준숙 박지나 박지영 박진숙 박진표 박창경 박하윤경 박현달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준 박현희 박혜영 박혜진 방기연 방상희 방은제 배새롬 배은경 배자하 배재훈(공시령) 배정원 배지연 백명옥 백미록 백선영 백선희 백성길 백세희 백지선 백현 변계희 변순일 상묵스님 서권일 서명선 서명호 서미현 서민자 서백열 서범원 서순진 서영주 서용완 서정기 서정에 서정표 서정훈 서주연 서태자 서해인 서희서 서희순 선희갑 설동민 설연자 성나리 성지은 손경이 손기주 손명구 손명과 손미연 손보경 손연성 손우성 손준성 손희정 송미현 송수영 송승훈 송애랑 송외숙 송요신 송은숙 송은주 송지선 송혜영 슌 신겸우 신경혜 신나영 신동현 신동훈 신문창 신상숙 신상호 신선에 신성용 신영미 신윤진 신은재 신은주 신자향 신정혜 신종훈 신현 신현정 신현주 신혜성 신화림 심난숙 심소영 심수희 심진섭 심창교 심현표 심혜련 심혜진 안규연 안문환 안민 안보라 안윤미 안재훈 안주리 안창해 안철민 안초롱 안형윤 안홍례 안홍자 양미초 양민희 양성옥 양수안나 양애경 양영희 양윤희 양은주 양지혜 양창수 양현경 양현구 양혜인 양효준 엄경출 엄인숙 엄지현 엄명숙 여연심 여한숙 엄명덕 엄성희 오경희 오희수 오다현 오미근 오미영

오세희 오송환 오숙희 오승이 오신혜 오자영 오정진 오정희 오진아 오현숙 오현주 오혜란 옥민영 우안녕 우완  
 우춘희 원경주 원민경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원창연 원형섭 원혜숙 유경란 유경희 유재옥 유배숙 유상열 유선옥  
 유선원 유세정 유숙주 유여원 유연택 유애리 유완희 유은주 유재영 유정호 유혜숙 유향순 유현광 유환숙 옥상근  
 윤범석 윤석남 윤소정 윤소희 윤수연 윤숙경 윤애리 윤양지 윤양현 윤여창 윤연숙 윤영란 윤영광 윤영호 윤영흠  
 윤용미 윤자영 윤정희 윤지원 윤지원 윤지희 윤희연 음선화 이경로 이경미 이경숙 이경숙 이경아 이경아 이경아  
 이경자 이계형 이고은 이규화 이금란 이김명란 이나래 이나영 이남주 이내화 이다정 이동규 이동원 이동원 이동현  
 이명숙 이명철 이명희 이문주 이미정 이미정 이미현 이민정 이민철 이병주 이보라 이부덕 이삼례 이상근 이상미  
 이주연 이상연 이상은 이새롬 이서영 이서지 이선미 이선영 이성수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소희(권승엽)  
 이송이 이수안 이수용 이승구 이승숙 이승진 이신정 이애란 이어진 이연실 이연정 이영기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영택 이예지 이용창 이원경 이원수 이원실 이원홍 이윤희 이윤상 이윤선 이윤선 이윤옥 이윤희 이은 이은미  
 이은비 이은상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주 이은지 이은현 이인환 이재순 이재은 이재은 이재민 이정민 이정봉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화 이주현 이주현 이준구 이준범 이준정 이지선 이지영 이지는 이지는 이지현  
 이지혜 이진숙 이진영 이진아 이찬희 이창원 이창윤 이채 이충주 이쾌희 이태숙 이향심 이현숙 이혜림 이혜숙  
 이혜영 이혜정 이혜진 이호균 이호진 이홍연 이호중 이호섭 이훈주 이희정 이희수 이희화 이희화 이진화 임복선  
 임선자 임수연 임승환 임오주 임자영 임주희 임지숙 임치선 임치순 임현훈 임홍섭 임희운 장규형 장다혜 장미정  
 장민경 장서영 장성희 장순례 장영애 장영희 장유진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은옥 장익수 장정희 장종순 장진  
 장혜란 장호경 장효정 전광우 전민주 전병미 전병희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애 전용필 전유경 전정현 전지현  
 전지혜 전혜영 전호완 정경아 정경애 정교화 정국동 정귀원 정다미 정대성 정대기 정두영(강혜숙) 정명종  
 정문영 정민이 정복련 정세원 정소린 정소영 정숙경 정순옥정순희 정여진 정영석 정영선 정예지 정옥분 정옥실  
 정유석 정윤경 정윤아 정은선 정재훈(나선영) 정정희 정정희 정준애 정지민 정지현 정진화 정창희 정혜라  
 정현 정현희 정혜선 제갈향선 조 은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울러 조민우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소연  
 조영선 조용범 조윤경 조윤주 조은숙 조은영 조은정 조은희 조인실 조인옥 조재옥 조정은 조종선 조진희 조진희  
 조현미 조현아 조혜원 조혜영 존타클럽 주경희 주관수 주명희 주혜정 주희진 지승경 지인순 진석중 진태란  
 차성안 차인순 차현영 채우리 채하승연 채현숙 채희영 최경식 최광라 최광식 최광옥 최규영 최기홍 최동석  
 최명숙 최미경, 아오리 최미숙 최석우 최선규 최성숙 최성옥 최성호 최성화 최소란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순미 최아림 최연순 최옥경 최왕림 최용득 최우진 최유미 최유진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경 최은영 최은영  
 최정민 최정은 최정희 최정희 최주정 최지나 최지니 최지영 최진아 최현무 추민주 추정의 추주형 추혜인 춘옥  
 탁옥희 포도나무상담센터 표현 하다영 하대호 하수는 하은주 하정원 하종석 하주선 하진옥 (주)한국아마자기  
 마작 한국여성재단 한문형 한미화 한병규 한보경 한석구 한세라 한수현 한승진 한승희 한승희 한양희 한양희  
 한영미 한윤자 한윤정 한재철 한재운 한희정 허경현 허남주 허라금 허복옥 허순만 허은주 허이화 허정의 허준석  
 허효정 현정은 홍한희 홍민철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수희 홍유진 홍윤기 홍은정 홍일선 홍재진 홍진경 홍혜선  
 황미선 황상하 황성기 황숙희 황순경 황인관 황정진 황지성 황지영 황지은 100주년기념교회 SUNS(심경미)

##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강학중 고정남 광미정 권윤진 권익숙 권진구 권형구 김경현 김덕현 김명희 김미주  
 김삼화 김선영 김옥란 김재련 김정희 김준길 김진영 김태진 김혜정 김하영 김효선 김희숙 노주희 니콜라 레나  
 레빗 명진숙 문경란 문해란 민남기 박기원 박미란 박상순 박서현 박윤숙 박윤순(YM건설) 박지만(주)EG  
 배경 배삼희 배정철 변대규 변혜정 손용석 시연숙 신동언 신혜경 안백림 안형정 야기 시노부 우기호 유소영  
 유호상 이경환 이경훈 이기철 이덕화 이동림 이명선 이명숙 이미경 이병규 이병우 이상구 이안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유정 이정숙 이혜경 이혜사랑 이화영 이효숙 임미화 임순영 장윤경 장필화 전성혜 정경자  
 정동범 정몽훈(주)효광) 정안나 정영택 정재정 정진옥 정취재 조선혜 조성천 조영환 조인석 조일래 조혜옥  
 주관수 채영수 천수민 천정환 청담마리산부인과 최보원 최영애 최정순 한국텔레콤 허정 홍성규 홍순기 홍승아

# 바

성폭력 → Vol.1

펴낸곳 \_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_ 이윤상

만든이 \_ 김다미

디자인 \_ 디자인이즈 02-363-0773

펴낸날 \_ 2010년 12월 31일

주소 \_ (121-884)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전화 \_ 02-338-2890~2

팩스 \_ 02-338-7122

홈페이지 \_ [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

이메일 \_ [ksvrc@sisters.or.kr](mailto:ksvrc@sisters.or.kr)

블로그 \_ [www.stoprape.or.kr](http://www.stoprape.or.kr)

트위터 \_ [www.twitter.com/stoprape](http://www.twitter.com/stoprape)



## [반성폭력] 1호는 신상호 회원님의 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반성폭력〉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소액후원부터 본 지면에 실릴 광고까지, 〈반성폭력〉 발간에 힘을 실어주세요.

후원 및 광고 문의 : 02 · 338 · 2890 ~ 2 나눔터 편집팀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은 '참여'입니다.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로 신뢰하며 일하는 일터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터

성별, 성적지향, 나이, 인종, 장애여부 등이 차별을 만들지 않는 사회  
진지한 소통과 따뜻한 연대가 살아있는 사회를 상상해봅니다.

이 멋진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기부,  
기부는 더 넓은 시각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후원방법** CMS 자동이체, 카드이체, 일시기부 등 후원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sisters.or.kr/> ('상담소 후원하기' 메뉴) **전화** 02-338-2890

(회비는 연말정산 시 100%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경험을 용기 있게 드러내고

공감과 지지를 나누는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앞서간 생존자들의 발자취에 힘을 얻으며,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거이 춤추며 길을 내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야기로, 노래로, 몸짓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펼쳤으면 합니다.

2010.11.04 7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춤추는 오름길>